



특집 1	창의 문화도시 서울의 과제와 전략   정효성	2
	2008년 서울문화재단의 일곱 빛깔 무지개   전지영	6
신년특집 좌담회	2008년 서울의 문화가 기대된다	12
서울예술	오는 것. 가는 것   박사	16
특집 2	2008년 문화예술의 새로운 나이트   전지영	18
	2008년 문화계 전반 소식   임윤희 · 노승림 · 정무성	22
돌러보기	최해리	28
	박용식	30
예술의 새로운 지형	양광테리블, 예술영재가 되기까지   권재현	32
	누구나 문화예술을 베푸는 시대를 향하여   김유진	38
	우리의 손끝으로 세상을 바꿔요   전지영	42
예술을 풀어주는 손	나를 '쥐'라고 불러줘   김뉴연	44
서울의 문화공간	서울, 바람의 공간 남산, 전망대   도호연	48
	살아 움직이는 미궁, 홍대 앞의 문화공간들   사탕발림	52
서울문화재단 문화정보		56
감동이 있는 문화	나눔과 소통을 전하는 '움직이는 서가'   한지연	58

---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2008년 1월 1일 발행 2005년 5월 20일 등록 발행인 안호상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발행 서울문화재단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130-823) t. 02-3290-7000 f.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디자인 타입페이지 www.typepage.com 사진 마이네임이즈스튜디오

# 창의 문화도시 서울의 과제와 전략

2 0 0 8

서울,

문화가

넘실거린다.

special features I

## 창의 문화도시 서울의 비전

민선 4기 서울시가 지향하는 비전은 '맑고 매력 있는 서울'을 구현하여 위대한(Great) 세계도시로 진입하는 것이다. 또한 창의와 문화, 꿈과 희망,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의 매력과 시민 고객의 행복 총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기 비전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경제 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이 균형을 이루는, 세계 10위권의 도시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도약하는 것이다.

서울은 그동안 시민 모두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인구규모, 도시정보화, 교통기반시설, IT산업 등에 있어서 세계적 수준에 올랐다. 그러나, 시민의 행복지수는 그다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 도시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기 위한 요인으로서는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는 시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실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21세기 성장 동력인 창의성의 원천으로서, 서울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회 가치이자 필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을 창의 문화도시로 브랜딩하기 위해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문화기반 조성, 창작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문화행복지수 향상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창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추진 전략과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한 문화기반 조성과 창작활동 지원이다.

장르별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시민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전통국악공연장을, 대학로에는 서울연극종합센터를 건립하였고, 한남동에는 뮤지컬 및 대중음악 공연장을 민자 방식으로 건립 중에 있다. 또한 어린이대공원에는 관람객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노들섬에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서울을 상징하는

## 창의 문화도시 서울의 과제와 전략

문화콤플렉스를 만들 계획이다.

지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치구 문화예술회관과 공공도서관을 계속 확충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도서관 간에 사이버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원격지 도서관에 있는 자료를 대출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매진하고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창작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난지도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규모를 확대하면서 국내외 미술 교류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남산 실내테니스장은 뮤지컬, 무용 등 중대형 무대작품의 연습 및 시연공간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미술창작스튜디오도 잠실운동장 내부에 설치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시유지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장르별로 하나의 창작스튜디오를 갖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문화 소외지역이었던 준공업지역 내의 공장 이적지에는 아트팩토리(Art Factory)를 건립하여 창작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국내외 작가의 교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둘째,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과 예술이 함께하는 도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

옥수역이나 정동길 등 시내 곳곳에 예술성이 높은 미

숭작품을 설치하는 도시갤러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명 작가의 단편시(時)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소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광장을 1년 내 내 문화가 흐르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매일 저녁 상설로 문화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겨울에는 빛의 축제와 스케이트장이 어울리는 환상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시민 고객들의 문화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의 대표 축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을 사계절별로 주제가 있는 참여형 축제로 구성하여 서울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는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지역 단위의 축제와 함께하여 시민은 물론 관광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근린공원, 한강, 구민회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다양한 장소와 장애인, 치매노인, 아동병원 등 공연장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장르에 맞게 시민 공연을 연중 추진하고 있다.

시민과 학생의 문화적 소양과 이해력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원의 행복' 프로그램을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세종문화회관의 관람석 150석을 어려운 이웃을 위

한 초청 좌석으로 제공하고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 사박물관의 무료 관람 기회를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넷째, 서울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보존·활용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고 있다.

2천년 고도이자 600년 조선시대의 수도인 역사도시 서울의 이미지와 함께 전통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성곽, 북한산성 등 역사유적을 복원하고 경희궁 등 고궁과 남산 한옥마을, 북촌 한옥마을 등 역사유산을 활용하여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해 나가면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성백제 등 삼국시대의 유적과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함께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 보고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으로 시민의 건강과 함께 서울의 관광 이미지를 높여 나가고 있다.

서울의 도시 매력을 살리는 스포츠축제를 개최하여 스포츠관광을 활성화하고 있다. 서울국제마라톤대회, 세계여자프로스쿼시대회, 세계여자비치발리볼 월드컵투

어대회 등 메이저급 국제대회의 유치로 통해 서울의 관광 매력을 한층 높여 나가고 있다. 또한 월드컵트라이애슬론, 국제여자축구대회, 한강마라톤수영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등을 유치하여 역동적이고 상상력 가득한 서울의 이미지를 세계에 전할 계획이다.

###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창의 문화 도시 서울

창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서울시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 기업, 전문가 등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제 시민은 더 이상 정책의 수요자,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생산자, 제안자가 되어야 한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창의 문화도시 서울, 도시경쟁력이 높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문화도시로서의 서울의 품격은 시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 2008년 서울문화재단의 일곱 빛깔 무지개

2007년은 서울문화재단이 '경영 2기'로 도약한 한해다. 재단은 지금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다양한 문화의 힘을 알리는데 주력했다면, 2008년부터는 키워온 사업을 하나하나 다지며 문화 흐름의 핵심에 자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즉 서울시의 '창의 문화도시-서울'의 가치와 상통하면서도 재단만의 고유한 색깔을 담을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합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는 월별 진행 예정인 사업으로도 알 수 있다. 각 시기별로 다채로운 사업을 살펴본다.

## 1.2 예술 지원, 국제 교류

### 1) 2008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접수 마감

서울특별시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재)서울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2008년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의 사업설명회가 12월 24일 충무아트홀에서 개최되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제작경비가 많이 소요되는 무대공연작품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을 통해 서울시의 공연예술 활성화를 유도하여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갖는다. 심사 후 선정되면 제작 규모에 따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억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08년 서울에서 공연을 계획 중인 단체라면 눈여겨볼 직하다.

### 2) 2008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2008년에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하는 예술지원사업의 접수 안내가 2월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이다. 예술분야별 창작 활성화를 진작하는 ①'창작활성화 지원사업' 프로그램과 미래가 촉망되는 신예 예술가를 후원하는 ②'젊은 예술가 지원사업' 그리고 서울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예활동을 지원하는 ③'시민문화예술 지

원사업'이다.

먼저 ①'창작활성화 지원사업'은 시각예술·문학·공연 분야에 지원한다. 시각예술과 문학 분야는 작품성이 기대되는 작가를 서류와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해 선정하며, 평균 1천만 원(문학)~2천만 원(시각예술) 규모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연 분야에 대한 지원은 2008년에 공연되는 작품을 평가단이 실제로 관람한 후 발전가능성이 있는 공연작품의 재공연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안내는 2월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다.

②'젊은 예술가 지원사업(NaT)'은 활동 경력은 짧더라도 신선한 아이디어와 도전정신, 잠재력을 갖춘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이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전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구성된 실험적인 작품들을 지원하여 예술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2008년에 네 번째로 시행될 예정이며,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실연 심사'를 통해 창작 과정과 작품에 대한 검증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은 젊은 예술가를 발굴해 키우는 데 의미를 갖고 있다. 지원 가능 분야는 연극 분야(연출가), 무용 분야(안무가), 음악 분야(작곡가), 시각예술 분야(미술작가), 문학 분야(작가)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월에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③'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서울 시민

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으로 총 20억 원의 규모가 지원될 전망이다. 공모 분야는 연극·무용·음악·영화·전통예술·문화 일반·문학·미술 그리고 예술 축제 부문으로 나뉜다. 매년 10월에 공고하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선정된 단체나 개인에게는 그 다음 해에 예술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주어진다.

### 3) 서울문화재단,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참석:

1월 8일~1월 10일

서울문화재단은 공연예술 분야의 세계 최대 기구인 국제공연예술협회(I.S.P.A.,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Performing Arts Foundation)의 제60회 국제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의 문화예술 홍보는 물론 '세계 속의 서울'이라는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난 2005년부터 국제공연예술협회에 등록하여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세계 예술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서울시와 재단에 필요한 문화정책 흐름을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600명이 넘는 각국의 회원들이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으로 모일 예정이어서 국제교류의 효과가 더욱 기대된다.

이 되어 관객을 찾아 거리로 나서는 매우 적극적인 형태의 공연활동으로, 유럽에서 발달한 예술 분야의 하나이다. 서울아티스트는 거리예술이 전문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한 거리예술가 인증제로, 2008년에는 3월과 9월에 두 차례에 걸쳐 선발할 예정이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면 외부 공연이 제한되어 있는 청계천 일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활동허가서를 발급받는다.

### 2) 제5기 청소년문화벤처단 모집

청소년문화벤처단은 청소년들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육성하는 제도이다. 단순히 동아리 활동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동아리 활동에 대한 멘토를 운영하고,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하는 활동에 대해 지원한다. 청소년문화벤처단은 4월에 접수를 통해 선정되어 11월에 활동을 마친다. 아울러 청소년문화벤처단으로 선정된 동아리들은 인증패가 수여되고 함께 한 무대에서 종합 공연을 펼치기도 하여 인기가 높다. 뮤지컬·연극·음악·댄스·전통예술 등 분야에 구분 없이 청소년을 주축으로 하는 동아리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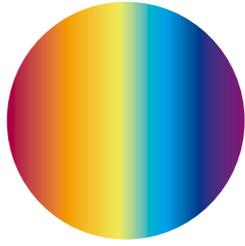
### 3) 자치구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자치구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서울시 자치구별 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강좌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2007년에는 시민이 실제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를 중심으로 기획되어 많은 인기를 끌기도 했다. 2008년에는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예술교육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3.4 나도 예술가!

### 1) 서울아티스트 선발 오디션

서울아티스트는 청계천 및 서울 일대 거리에서 예술가들이 공연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정하는 예술가 인증 프로그램이다. 일명 버스킹(Busking)이라고 불리는 '거리예술활동'은 마임·저글링·퍼포먼스 등이 주축



## 5.6 화려한 볼거리

먼저 자치구에서 희망하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자치구 수요에 근거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위탁운영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각 구별로 선정된 예술교육 전문 단체는 담당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자치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선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자치구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자치구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과 동시에 서울문화재단 '문화매개자 전문교육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을 자치구로 파견하여 자치구 교육사업의 기획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2007년의 사업을 발판으로 올해에는 좀더 발전된 내용으로 3월에 선보일 예정이니, 내가 속한 자치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은 어떨까?

### 1) 하이서울페스티벌 - 봄축제: 5월 2일~5월 5일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08년 하이서울 페스티벌은 기존 5월에 집중되던 행사를 5월/7월/10월/12월 4회로 나누어 '이야기가 있는 계절별 축제'로 발전시켜 진행할 예정이다. 이중 하이서울-사계절-페스티벌의 시작인 5월의 '봄축제'는 역사와 전통 재현을 주제로 하여 서울광장, 궁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특히 안무가 안은미 씨가 봄 축제의 예술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이어서 예술적인 파격, 대중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예술 축제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 2) 책 읽는 서울

2004년부터 추진되어 온 독서캠페인 '책 읽는 서울'은 서울 시민의 독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고안된 사업이다. 그동안 '책 읽는 서울'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과 책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맡아 왔다. 지난 2007년 이 사업은, 지역 도서관을 문화커뮤니티로 변모시키자는 취지에서 펼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학급문고 지원사업인 '움직이는 서가' 등 독서 환경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서부터 유명 저자가 학교에 찾아가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연평균 독서량이 눈에 띄게 줄고 있는 요즘, '책 읽는 서울'은 2008년에도 서울 시민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7.8 문화로 떠나는 피서

### 1) 하이서울페스티벌 - 여름축제 : 7월 25일~8월 3일

5월에 이어 7월에 열리는 하이서울페스티벌-여름축제는 '미라클 한강'을 주제로 한강공원 일대에서 개최된다. 한강에 수중다리를 만들고 그 위를 맨발로 걷는 '미라클 수중다리'와 세계적인 줄타기 명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강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세계줄타기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수상레저 행사와 함께 한강 특설 무대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까지 함께 준비되고 있어 평소 즐길 수 없었던 특별함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더운 여름, 한강 물 위에서 만끽하는 피서로 더위를 날려 보자!

### 2) 시청사 모뉴먼트 프로젝트

지난 2005년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태극기 3,600장으로 휘감긴 서울시청사를 기억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이름의 이 설치 미술이 바로 '시청사 모뉴먼트' 사업이다. 이 사업은 매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서울의 상징인 시청 건물을 설치미술로 감싸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광복절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고안되었다. 작품은 공모 방식으로 선택된다. 지난 2007년 광복 62주년에는 '환희'와 '화합'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공모한 결과, 3만 6천 개의 무궁화로 시청사를 장식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전 시되었다. 올 2008년 광복절에도 시청사가 어떤 모습으로 변신할지 기대된다.

## 9.10 공연 풍작의 달

### 1) 고궁뮤지컬 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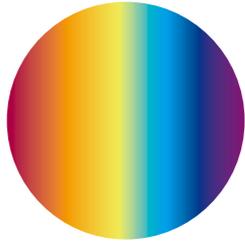
서울의 고궁(경희궁)에서 뮤지컬 공연을 본격적으로 상설화하여 공연할 예정이다. 2007년 12월에 공모를 통하여 1차 우선 협상자로 선정된 <대장금(PMC프로덕션)>이 고궁 특설 무대에 맞게 각색하여 오른다. 1,000석 내외의 중형극장 규모로 객석이 마련되며, 3만 원 내외의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서울만의 특색 있는 문화공연으로, 외국 관광객에게는 대표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서울을 찾는 1,200만 명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하이서울페스티벌 - 가을축제: 10월 3일~10월 11일

가을축제는 익스트림 스포츠로 10월 3일부터 11일까지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다. 자전거 묘기스포츠,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오토바이 묘기대회 등이 준비된다. 또 서울드림페스티벌, 하늘공원 역사축제 등 시민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아온 축제와 연계하여 10월의 가을을 축제의 달로 운영할 계획이다.

### 3) 제3회 청계천축제 : 9월 말~10월 초

청계천축제는 청계천 복원을 기념하며, 2006년을 첫 시작으로 매년 가을에 개최되고 있다. 매년 '문화예술'과 '디지털', '환경'을 주제로 청계천 일대에 열리는 청계천축제는 올해로 3회를 맞이한다. 청계천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울아티스트의 거리예술도 함께 열려 화려한 볼거리가 진미를 이룰 것이다.



# 11.12

문화 나눔으로

빛나는 달

## 1) 하이서울페스티벌 - 겨울축제:

2008년 12월 15일~2009년 1월 15일

겨울에는 루체비스타와 연계해 빛과 조명예술을 주제로 서울광장과 동대문, 한강, 서울 시내 주요 거리에서 12월 15일부터 2009년 1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질 예정이다. 조선일보와 함께 나눔으로 빛나는 겨울을 준비하는 서울문화재단은 광화문·덕수궁 등 서울을 상징하는 건물에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설치하여 환상적인 야경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동대문 쇼핑몰 빌딩을 이용한 조명쇼와 한강 다리와 한강 수상에 조명을 설치하는 '빛의 모뉴먼트 한강' 행사 등도 준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추운 겨울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을 빛의 향연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해 보는 것은 어떨까?

## 2) 제4회 문화서울후원상 시상식 개최

'문화서울후원상 시상식'은 서울의 문화와 예술을 가꾸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헌한 기업을 시상하는 행사이다. 관련 전문가와 예술가가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예술가가 만든 작품이 부상으로 수여되어 그 의미가 크다. 1회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을 시작으로 GM대우, 한화그룹, 하나은행,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상한 바 있다. 점점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기업에서 문화를 통한 마케팅과 나눔 활동에 신경 쓰고 있어 2008년 수상 기업에 대한 기대가 크다.

## 3) 놀이터 모형 선정

'문화놀이터'는 일상 공간인 놀이터를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4년 문화놀이터 매뉴얼 제작을 시작으로 매년 놀이터 모델 디자인을 공모해 온 결과, 2006년에는 현대건설과 함께 돈암동 현대아파트 내에 '거꾸로 놀이터'를 시공했다. 지난 2007년 제3회 공모전에서는 건국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시민준, 박지원 씨의 '노트플레이(Knot Play)'가 금상을 수상했으며,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단과 힐스테이트 갤러리에서 입상자 전시회가 열렸다.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함께 나눔으로 조성하여 빠하고 재미없었던 천덕꾸러기 놀이터가 '문화놀이터'로의 멋진 변신을 기대해 본다.

## 4) 저명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사업

김대진, 남경주, 조수미, 박경림이 학교에 떴다?! '저명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국내의 저명한 문화예술인이 예술교육지도자(arts-educator: 에듀케이터)가 되어 학교 교육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련된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유명 예술가에게는 사회 공헌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색다른 재미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진다. 2007년에는 <생각하는 호기심예술학교> 중 시범 프로그램인 '마법예술학교'편에 방송인 박경림 씨가 참여하였으며, 피아니스트 김대진 씨와 연극연출가 임도완 씨도 '1일 희망의 예술교사'에 참여하여 문화 집중력을 높이는 '친근한 1일 예술교사'를 담당했다. 이들 저명 예술가들은 흔쾌히 자신의 재능을 나눈다는 의미로 교통신비 정도만 받고 참여하여 의미가 더욱 깊다. 2008년에는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열린 예술교육의 기회를 확

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기획·운영될 예정이다.

## 연중 사업 가족과 함께 문화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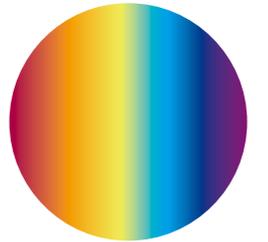
### 문화는 내 친구

'문화는 내 친구'는 문화를 좀더 친근하고 가깝게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로 3월부터 10월 까지 매달 네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예술가의 아틀리에와 갤러리 탐방 및 옥션 참가,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의 생가를 찾아가는 미술유적 투어, 서울 도심의 뒷골목을 전문가의

해설(영어 동시 진행)과 함께 걸어보는 문화유산 투어, 유명 건축가와 함께 근현대 서울의 건축물을 살펴보는 건축문화 투어, 서울의 주요 박물관을 방문하는 박물관 투어, 매월 유명 전시평론가와 동행하는 전시장 투어 등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독특하고 알찬 구성이 돋보이는 '문화는 내 친구' 프로그램은 서울 속에 숨겨진 문화자원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다.

(재)서울문화재단은 월별 체계적인 사업 계획으로 예술가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예술교육에 앞장서며, 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통해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글. 전지영  
<문화+서울> 취재기자



# symposium



신년을 맞이하여 공연, 음악, 미술 대표하는 3인이 만났다. 이들과 함께 지나온 문화계를 정리하는 한편, 2008년을 열어갈 서울의 문화 방향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았다. 김승현 문화일보 문화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의 김대진 교수, 그리고 예술의전당 김미진 전시예술감독이 생각하는 2008 문화계 이슈를 들어본다.

## 신년, 새 출발 새 정부의 역할

**김승현** 이명박 정권에서는 순수 기초예술이 고급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명박 당선자는 이미 서울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정명훈 씨를 기용하고, 청계천에 올덴버그의 작품을 유치하는 등의 최상위 고급 예술을 선정하는 성향을 보여 왔다. 이를 단서로 확장해 볼 때, 고급 기초예술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비주류예술과 진보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바로 고급예술과 대중 예술의 사이에서 문화를 잘 섞어내는 것이 새 정부의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대진** 새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는 없는 듯하다. 음악협회가 음악인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구심점 역할을 할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문화재단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적 수립으로까지 이끌어줘야 한다. 외국 아티스트를 자꾸 이끌어올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일 뿐이고, 장기적 관점에 대해 음악인들이 원하는 방향, 마인드를 만들어

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피아노 듀오 연주를 하려던 계획이 다른 연주자의 연습부족으로 무산된 적 있었는데,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즉, 공연에 대한 예술가나 사회적인 마인드와 연주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또 하나, 초대권 문화 역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예술의전당 송년음악회 같은 프로그램은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승현** 젊은 관객은 큰 이슈다. 무엇보다 고급 예술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설 음악회가 많이 생겼지만 고급 정통 음악 공연으로 끌어들이느냐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김대진** 기존의 음악계에서 자체적으로 해설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 정권의 교체에 따른 문화예술계의 주요한 변화

**김미진** 도시프로젝트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디자인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디

## 2008년

## 서울의 문화가 기대된다

자이에 있어서 세련됨을 추구한다. 서울 외에도 인천, 여수 등이 새로운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으므로 예술적 수요가 급증 할 것이다. 선진국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더욱더 문화예술을 적극적으로 부각할 것이다.

**김승현** 지자체가 실시되어 민선 4~5기를 맞이하면서 창조자에서 수혜자에 대한 관점으로 변화되어 왔다. 프랑스는 창작자를 위한 문화정책(앙드레 말로)에서 예술소비자와 문화복지(자끄)로 변경되어 왔지만, 지금은 어떤가. 오히려 뉴욕에 밀리고, 프랑스 문화는 죽지 않았는가. 한국 문화가 프랑스의 실패한 정책을 무비판적 답습하였다.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창작자와 수혜자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김미진** 안정적인 시스템 속에서만 예술 활동을 하게 되면, 살아남기 위해 쫓아가는 부분은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큰 돈줄기를 따라 그들의 취향에 맞는 예술만 해서 대중을 등한시 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공무원, 시, 지원금 등의 시스템에서 나오는 사생아적인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작업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고민 깊은 작품은 나온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움직이는 스타성 짙은 작가는 배출하기 힘들다는 맹점도 있다.

## 그릇 안에 내용물이 없는 서울시 문화예술의 현주소

**김대진** 요즘 서울시 각 자치구에도 많은 공연장이 있다. 하드웨어(공연장)는 굉장히 좋은 반면,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본인도 활동을 많이 하는 예술가지만 각 구마다 (공연장이) 생긴 것은 모르고 있었다. 이는 결국 행정을 맡은 정부와 실연을 담당하는 예술가의 괴리를 의미한다. 예술가가 활동하는 현장과 행정과의 접목이 맞아야 한국 문화가 발전할 것이다. 사실, 우리 음악계가 발전하게 된 것은 IMF때문이다. 이 때 외국 유수 프로그램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내 음악이 발전 할 수 있었다. 어찌되었건 공연장과 예술가의 뜻이 맞아야 한다. 앞으로도 이 같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승현** 한국 공연장을 보다 보면 하드웨어는 프랑스식으로 정부에서 제공하고, 운영은 영국식 위원회체계이며, 재정은 '알아서 하라'는 미국식을 따르고 있다. 이 것 저 것을 조합하지 말고, 일맥을 맞춰 나가야 시민에게 그 효과가 더 크게 다가갈 것이다.

**김미진** 이제 하드웨어 구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5년 정도로 책임 경영해야만 핵심 역량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계획을 하고 실행으로 옮기는 시물레이션은 1~2년 주기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내가 계획한 것은 거두지 못 하고 나가게 되는 셈이다. 이제 내용은 필요할 때이다. 이번 태안 사태의 경우를 보면 국민의 의식은 이미 선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2008년  
서울의 문화가 기대된다



를 정부에서 잘 끌고 나가야한다. 적절한 롤 모델이 나와야 할 때이다. 물론 교육도 중요하다.

**김대진** 예술의 양적·질적 팽창 후에 오는 것은 교육의 문제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

**부풀어오른 미술시장의 과제**

**김미진** 지난 한 해동안 미술시장에 대한 관심은 어느때 보다 높았다. 아마 올해도 이 같은 관심과 미술시장의 팽창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특히, 최고의 부자는 다이아몬드와 회화를 소유하길 원한다고 한다. 그만큼 미술품이 부의 척도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현재 미술시장의 문제는 개인 성향에 따라 컬렉션을 해야 하는데, 부동산같이 붐이 되어서 과대평가되어 폭탄이 되어버렸다는 것에 있다. 값이 급속하게 오르는 단면만 보고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미술시장이 확대되어 최근 중국, 해외 경매에서 흘러오는 것이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미진** 최근 중국 미술시장도 커지고 있고, 한국 갤러리의 진출도 눈에 띈다. 문제는 중국의 특성을 모르고 막 쫓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검증도 안 되고 평론가도 없고 화랑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돈에 의해 좌우되기 십상이다. 좋은 작가와 잘 팔리는 작가에 구분은 없었지만, 현재는 많은 자본이 몰리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어버리면서 부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작가에 대한 검증은 없다. 따라서 작품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해야한다. 이러한 필요를 해소해줄 수 있는 문화재단 같은 공공예술기관의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승현** 시민의 견해로 봤을 때 외국에서 좋

은 작품을 많이 수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또 좋은 그림을 보러 다니는 것은 계급의 구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김미진** 그런 것은 성장을 위한 진통일 뿐이다. 현재의 현상을 보았을 때, 다양한 계층이 미술을 향유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싼 그림을 둘러싼 사람들 말고도 일반인(진정 애호가) 역시 많이 있기 때문에 호황이 이룬 것이다. 1%에 의해서만 시장이 좌우되지만은 않는다.

**김미진** 올해 인천, 포천의 비엔날레가 개최되었고, 내년에는 커다란 미술행사가 유독 많은 해이다. 광주비엔날레, 부산, 미디어시티 서울 등 큰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 물론 미술관련 큰 행사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미술을 접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단지, 외국과는 달리 이 작은 나라에 비엔날레가 수적으로 많아지고는 있지만, 진정한 국제행사인 미술 비엔날레로서 내용을 갖고 있는지는 검증하고 조정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시도로 기대를 모으는 연극계와 무용계**

**김승현** 2008년 연극계의 경우, 고정 레퍼토리(명작)와 신작의 대결이 불만할 것 같다. 예술의 전당은 '갈매기'와 '맥베드'를 공연할 예정이고, 국립극장은 '햄릿' 순회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연극열전의 경우 '서툰 사람들', '늘근 부부 이야기'를 주목해볼직 하다. 특히 '늘근 부부 이야기'는 영화감독 김지훈의 연극 연출 데뷔작이다. 이 외에도 '엄마,안녕' 등 기대된다. 또한 이순재, 황정민, 문성근, 조재현 등 브라운관이나 영화를 누빈 스타들의 연극 귀환도 주목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연극계는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 되지 않

을까. 명작뿐만 아니라 신작까지 아우르니, 연극 부흥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LG 아트센터는 인형의 집 등 새로운 작품을 수입할 예정이다. 프루프 등 좋은 작품 수입도 기대된다.

무용의 경우 모다페, 스프링웨이브, 시댄스 등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연극에서 무용으로 파급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작년 스파프(SPAF) 경우, 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연극과 조화를 이루었다. 반면, 빈익빈부익부 현상도 우려된다. 특히 새 정부에서 고급 예술을 강조 할 것이므로 빈익빈부익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신인, 실험예술에 대한 지원과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니만큼, 서울문화재단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김승현** 한류의 맥을 이었던 대중가요, 영화는 무너져 가는 형국이다. 또한 뮤지컬에는 좋은 가수, 배우 등이 몰릴 것이다. 올해 손익분기점이 매출액의 60%를 넘어서 든든한 실세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전망한다. 재단에서는 하드웨어(전용극장) 같은 부분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특히 예술의 전당 화재 사건이 있어 하드웨어에 치명타를 입혔으므로, 샤롯데 등의 극장과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8년은 진정한 애호가의 형성, 문화계의 추진력이 필요한 시점**

**김미진** 시장은 자본에 의해 움직일 것이다.

2007년에는 문화를 투자로 보는 시각 때문에, 문화를 좋아하는 애호가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의해 문화 시각이 변동될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는 애호가 층이 형성되어야만 안정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저널에서 지목하는 투자에 의한 인기는 오래 못갈 것이다. 예술이 돈만을 따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작가에 대한 정신이 결여된 사람은 스스로 도태될 수밖에 없다. 3년간 예약되어 있는 사람도 결국 1%이고 나머지 99%는 알아서 예술을 발전시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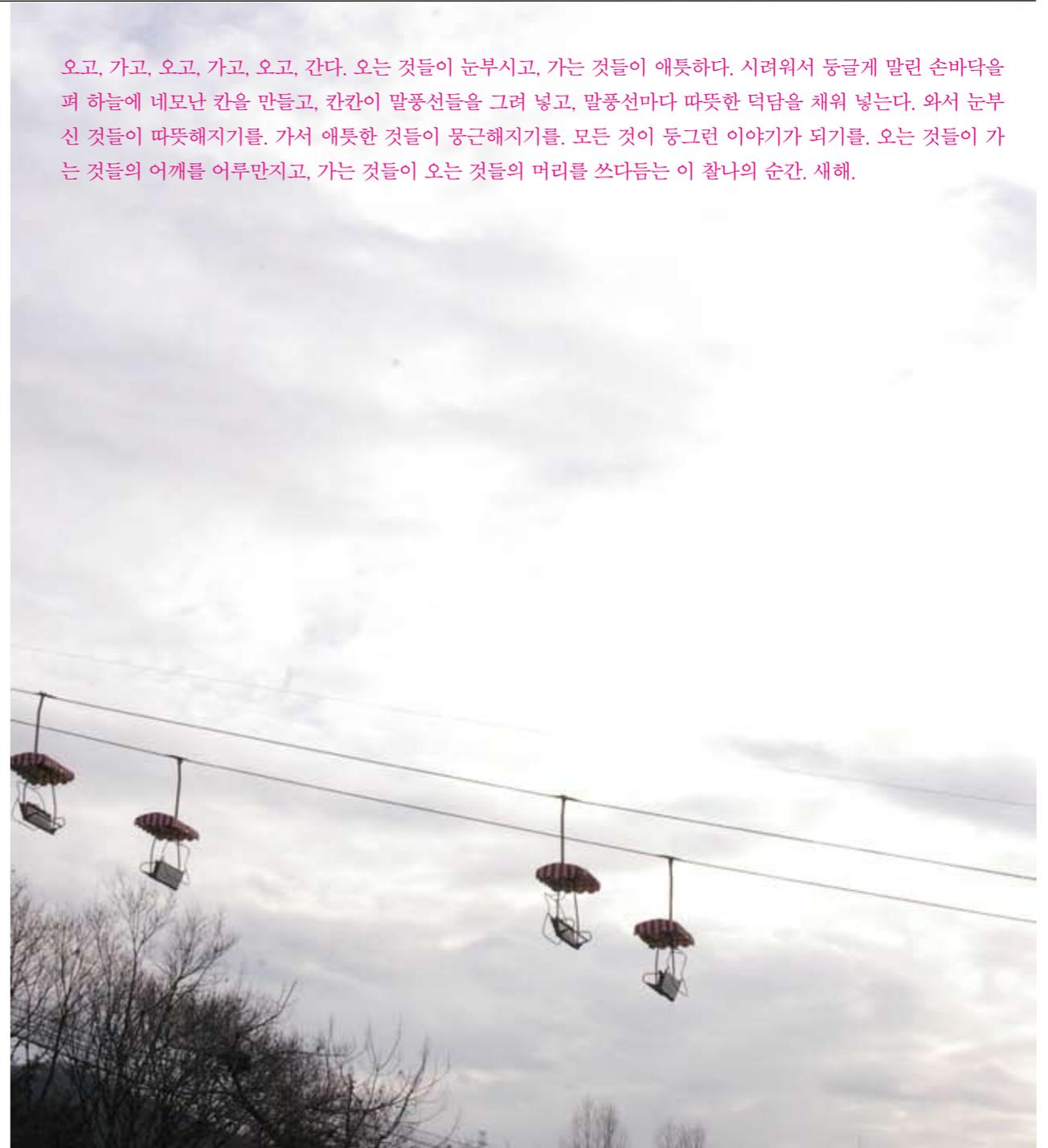
**김승현** 새 정부 또한 본인의 색깔을 문화로 내비춰야 할 것이다. '진보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고급 예술과 대중 예술을 어떻게 섞어야 할 것인가' 등의 질문이 문화계의 숙제가 될 것이다.그러나 아무래도 순수기초 고급예술이 우월한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을까 싶다. 뮤지컬과 클래식 음악이 발전하고 연극(정극) 티켓 판매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대중음악은 기세가 꺾일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새 정부의 숙제다.순수 예술의 발전이 기대되면서, 대형 프로젝트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급 문화 예술에 관한 전반적 인프라도 가시적이다.뚜렷한 공약이 없는 다른 후보들에 비해 이명박 당선자는 문화시정을 표방하였다. 이를 토대삼아, 문화계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정리. 고유진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오는 것. 가는 것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간다. 오는 것들이 눈부시고, 가는 것들이 애뜻하다. 시려워서 둥글게 말린 손바닥을 펴 하늘에 네모난 칸을 만들고, 칸칸이 말풍선들을 그려 넣고, 말풍선마다 따뜻한 덕담을 채워 넣는다. 와서 눈부신 것들이 따뜻해지기를. 가서 애뜻한 것들이 뭉근해지기를. 모든 것이 둥그런 이야기가 되기를. 오는 것들이 가는 것들의 어깨를 어루만지고, 가는 것들이 오는 것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이 찰나의 순간. 새해.



기 대 되 는

2 0 0 8

문 화 예 술

special features II

# 2008년 문화예술의 새로운 나이트

생장이 뚜렷한 식물에게 1년 주기로 발견되는 나이트. 나이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식물의 나이이자 성장의 발자취이다. 2008년 문화예술계에도 뚜렷한 나이트를 그리는 주인공들이 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의전당, 춘천인형극제 그리고 한국 연극계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생일을 맞이하여 자신들의 발자취를 짚어봄과 동시에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2008년에 또 하나의 나이트를 그릴 주인공들의 어제와 오늘을 지면에 모아 보았다.

## 서울에 문화의 씨앗을 뿌리다 - 서울문화재단 설립 4주년

문화로 꿈꾸는 서울의 미래, 그 중심에 서 있는 서울문화재단이 올해로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그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 시민의 문화 향유에 조타수 역할을 해왔다. 문화를 통해 서울 시민들의 삶에 온기를 불어 넣어주었으며,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가능케 했다. 지난 2004년에 설립된 이래로 재단은 합리적인 문화·예술 지원과 창의적인 문화 사업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서울문화재단은 지난 4년 동안 다채롭고 창의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업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필두로 한 문화 경쟁력 강화 사업이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재단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서울시의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4년이 지난 지금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안주하기보다는 변화를 택한 <하이서울페스티벌>은 2008년부터 새로운 운영 방식을 선보일 예정

이다.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축제'로 거듭나기 위해 5월에만 집중되었던 행사를 사계절에 걸쳐 펼쳐놓은 것이다. 5, 7, 10, 12월에 각 계절을 상징하는 주제를 갖고 다양한 행사들이 시민을 찾아가갈 예정이다. '변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예술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파격적인 안무가 안은미가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었으며, '전통의 현대화'라는 또 다른 축제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전통예술가 진옥섭이 메인 프로그래머로 임명되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업은 <책 읽는 서울>이다. 이 프로그램은 나날이 줄고 있는 시민들의 독서량을 좀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복돋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7년에는 소설가 은희경 등 유명 작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 유명 인사의 문화 기부와 학교도서관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 '움직이는 서가' 등, 좋은 아이디어로 큰 호응을 얻었다. 대학로 연습실과 같은 인프라 확충 및 젊은 예술가·시민 문예지원 사업 등은 문화예술 창작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그밖에도 <문화는 내 친구>, <문화 환경 가꾸기 프로젝트> 등의 사업을 통해 서울 시민의 문화 충전지 역할을 해왔다.

지난 4년간 서울문화재단의 사업은 본격적인 농사

를 시작하기 전에 이룬 개간 작업에 불과하다. 2008년에 설립 4주년을 맞은 지금, 서울문화재단은 개간된 땅에 씨앗을 심고 꽃을 피워야 한다. 서울문화재단의 새로운 과제는 조타수의 역할을 넘어서 시민의 자발적 문화 향유를 도모하는 윤희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8년은 재단의 변화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서울 공연의 심장 - 예술의전당 개관 20주년**

수도권 공연예술의 심장인 예술의전당이 오는 2008년 2월 15일에 개관 20주년을 맞는다. 예술의전당은 1988년에 개관한 이래로 명실 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센터로 자리 잡았다. 음악당, 오페라하우스,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술의전당은 연간 1500여 회의 공연 및 전시를 소화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옥외광장이 조성되면서 도심 속의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개관 20주년을 맞이하여 예술의전당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공연 25건, 전시 9건이 기다리고 있다. 먼저 음악당은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는 연주자 및 연주단체의 초청공연과 함께 기존의 대표급 기획 프로그램을 좀 더 향상시켜 선보일 예정이다. 특별 초청 프로그램의 면면을 살펴보자. 우선 오는 2월 15일 소프라노 신영옥, 피아니스트 김선욱이 KBS교향악단과 연주회를 갖는다. 이어서 2월 17일, 5월 23일에는 'Korean World Star 초청연주회'라는 기획 아래 정명훈과 조수미가 각각 음악당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이외에도 세계 10대 오케스트라로 꼽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필하모닉 초청연주회', 당대 최고의 피아노 듀오인 '카티엘 & 마리엘르

라베크 자매의 초청연주회' 등 굵직굵직한 공연이 줄지어 무대에 오른다. 초청공연과 더불어 교향악축제, 11시 콘서트, 김대진의 음악교실 등 기존 예술의전당의 인기 있는 기획 프로그램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내용으로 관객을 찾아갈 예정이다.

오페라극장에도 바이로이트 프로덕션의 <파르지팔>, 네덜란드 댄스씨어터 I 등 굵직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달 불의의 화재사건으로 인해 공연이 불투명한 상태다.

토월극장과 자유소극장에서는 지난 20년간 예술의전당에서 공연된 연극 49편 중 관객에게 가장 사랑받은 작품 두 편을 엄선하여 공연할 예정이다.

전시 분야에서는 5월 22일부터 시작될 '21세기 한국 미술의 현장'이 눈에 띈다. 국내외 작가 40명의 작품 150여 점이 출품될 예정인 이 전시는 한국 미술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술의전당은 이번 개관 20주년을 맞아 화재사건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세계 5대 아트센터'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 높은 공연장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및 국내 예술계의 활성화라는 또 다른 과제를 균형 있게 수행해 나갈지 예술의전당의 2008년이 기대된다.

**한국 연극, 한 세기를 가로지른다  
- 한국 연극 100주년**

1908년 11월 15일, 한국 최초의 신극 <은세계(銀世界)>가 원각사(圓覺寺, 서울 새문안교회 자리에 있던 서양식 극장)에서 처음 공연된 이날, 바로 한국의 연극사가 시작되었다. 100년의 시간 동안 한국 연극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다. 물

론 전진만 했던 것은 아니다. 한 세기라는 긴 시간 동안 연극계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시달려 왔다. 특히 최근에는 외형의 성장이 시장의 성장과 맞물리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 외에도 작품의 질적 성장이 멈춰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들린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긍정적인 성장통으로 작용하려면,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시점에서 연극계가 겪어온 과거와 당면한 현실을 냉정하고도 이성적인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연극협회는 이러한 연극계의 자기 성찰을 통해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난 2007년 11월 '한국 신연극 100주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3주 연속 세미나'를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공공기금의 연극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및 방향성, 바람직한 공공극장 운영 및 상주 단체의 운영체계 점검 및 개선 방안의 모색, 아울러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상업자본의 출현에 따른 연극 제작환경의 변화와 대응책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성찰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지난 100년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특히 눈에 띄는 행사로는 100년 만에 한국 연극의 장을 연 최초의 신극 <은세계>의 복원 작업이 정동극장(원각사의 후신)에서 준비 중이다. 이는 한국 연극의 뿌리를 되짚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연극계는 자축과 성찰이 공존하는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을 경험 삼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야말로 한국 연극계가 100주년을 맞이하는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꿈과 희망의 축제가 스무 살을 바라보다  
- 춘천인형극제 20주년**

지난 20년 동안 8월이 되면 호반의 도시 춘천은 꿈을 꾸었다. 아이들은 말하는 인형을 보고 꿈과 희망을 얻어갔으며, 어른들은 다시 아이가 된 것처럼 행복해하며 잠시나마 동심에 잠길 수 있었다.

올해로 스무 돌을 맞이하는 춘천인형극제는 이처럼 어른, 아이를 불문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는 춘천인형극장과 춘천인형극박물관이 차례로 개관하면서, 춘천은 국내 유일의 인형극 메카로 떠올랐다. 지난 2007년에는 '물의 나라 꿈의 나라'라는 주제로 해외 5개국 7개 극단(미국, 이스라엘,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국내 37개의 전문 극단 및 25개의 아마추어 극단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식 초청공연, 일반 참가공연 외에도 자유 참가공연, 거리공연 등 다채로운 형태의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났다. 무대 밖에서는 해마다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체험 프로그램, 벼룩시장, 워크숍 등의 부대행사는 관객이 주연이 되는 자리다. '관객과 더불어 즐기는 축제'는 춘천인형극제의 또 다른 바람이다.

지역축제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춘천인형극제는 이제 차별화된 '지역축제 중 하나'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문화축제로의 도약을 꿈꾼다. 최근 인형극계는 마임, 연극 등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런 시류에 발맞추어 춘천인형극제 역시 한 단계 진화하리라 기대된다. 2008년, 스무 번째 생일이 바로 그 진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글. 전지영 <문화+서울> 취재기자

출판.도서

글. 임윤희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2007년, 2008년에는 큰 행사도 기다려...

인문서의 약세 속에 역사소설의 약진

2007년 한 해 동안의 도서 판매 성향은 전반적으로 본다면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와 두드러진 경제경영서의 강세는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민심에 민감한 정치인들의 화두가 '경제'로 집중되듯 이러한 흐름은 2008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각종 베스트셀러의 상위에 랭크되었던 경제경영서로는 《시크릿》(살림Biz), 《이기는 습관》( 쌤앤파커스), 《마시멜로 이야기》(한국경제신문), 《대한민국 20대, 재테크에 미쳐라》(한즈미디어) 등을 들 수 있는데, 독자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편집의 노하우들이 다양해지면서 경제경영서의 스펙트럼 역시 좀더 다채로운 양상을 띠어가고 있다.

한편 2007년 출판계의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는 한국 역사소설의 약진을 꼽을 수 있다. 한동안 주춤해왔던 한국 소설 시장이 중진 소설가들의 역사소설 발표와 함께 또다시 독자들의 눈길을 잡아끌었다. 김훈의 《남한산성》(학고재), 황석영의 《심청》(창비), 신경숙의 《리진》 등은 모두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 소설들 중 몇몇은 올해 영화로 제작되어 스크린을 통해서도 선보일 예정이다. 역사소설은 아니지만

작년 연말에 즈음하여 공지영, 박완서, 이청준, 김영하, 김연수 등의 중견작가들이 각각 신작 소설을 발표하여 베스트셀러 진입을 노리고 있는 것도 한국 문학계로서는 고무할 만한 일이다.

한국 문학에 비해 외국 문학의 성장세는 다소 주춤했으나, 다양한 장르문학들이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있음은 주목해볼 만하다. 여름 시장에서나 선보이곤 했던 다양한 장르물들이 한 해 동안 시큰과 무관하게 시장에 쏟아져 나왔는데, 이는 일본 문학 시장의 성장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 오쿠다 히데오, 온다 리쿠, 미야베 미유키, 요시모토 바나나 등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현대 작품들이 한국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상당수가 출간되었고, 《판타스틱》과 같은 장르문학 잡지가 창간된 것도 장르문학 시장의 청신호라 할 만하다. 그러나 공급만큼 수요에 있어서 파괴력 있는 성장세를 이어갈지는 올 한 해를 지켜봐야 할 듯싶다.

반면 인문서 시장은 연이어 쉽지만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문학 출판시장의 위축은 반복되어 회자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히 인문사회과학 출판사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간간히 저명한 인문학 저자들의 학술서적이 각광을 받았던 현상도 작년에는 극심하게 줄어들었다. 그럼

에도 작년 하반기에 출간되어 화제가 되었던 《88만 원 세대》(레디앙미디어)와 같은 경우,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의 삶과 밀착된 고민을 진단하고 규정하는 중요한 성과로 보인다. 동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인문학 서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토대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지의 문제는 여전히 한국 인문학 출판에서의 화두가 될 것이다.

출판계의 올림픽, 국제출판협회 총회 개최

한편 현재 한국 출판계는 큰 행사를 목전에 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년마다 개최되는 출판계의 올림픽이라 할 만한 국제출판협회(IPA,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총회가 2008년 5월 서울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표현과 언론 출판의 자유 확대, 출판산업의 진흥 등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출판협회에는 현재 전 세계 78여 개의 출판 관련 단체들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국제출판협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은 이번 총회를 개최하면서 한국의 출판산업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국제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출판 환경에 대해 각국의 참가자들과 함께 논의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나 파리, 런던, 북경, 볼로냐 등의 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도서전들은 대개 저작권 거래를 통한 시장의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데 반해, 국제출판협회 총회는 도서정가제,

부가세, 책의 디지털화 등 각국의 출판시장이 처해 있는 환경과 출판 관련 제도 및 정책들에 대한 심도 깊은 정보 교류와 논의가 진행되는 행사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의 첨단 디지털문화와 연계된 오디오북과 전자책, 휴대전화 북서비스 등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걸맞은 시스템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한국의 출판문화를 선보이는 한편, 기존의 서울국제도서전을 국제출판협회 총회와 같은 기간에 개최함으로써 저작권 시장으로서 서울국제도서전이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에서는 명실상부한 '국제' 시장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주변국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첫 번째 주변국으로 중국이 선정되었다. 저작권 보호가 미흡한 탓에 국제출판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개최와 연계하여 서울국제도서전을 자국의 출판문화를 선보이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중국 출판문화에 대한 관심은 한국에서도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위화, 쑹통, 하진 등 중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들이 한국 시장에 선보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서울국제도서전의 주변국 행사를 계기로 중국과의 좀더 폭넓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희  
「생각의 나무」 편집팀장을 역임하였으며, 다수의 도서 출판 기획 및 편집을 담당하였다.

공연

글. 노승림

궂직한 공연, 다채로운 시도

2008년도는 한국 공연예술계에 특히나 뜻 깊은 해이다. 1978년 개관한 세종문화회관과 1988년 개관한 예술의전당이 각각 2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하기 때문이다. 두 공연장이 한국 공연계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까지는 여러 우여곡절과 진통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를 수용하고,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전당의 일관된 정책은 한국 공연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분명 크다.

20주년을 맞이하는 예술의전당이 다음 20년을 내다보며 기획한 기념공연 중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바그너의 음악극 <파르지팔>의 초연이다. 독일 바이로이트의 실질적인 수장이라 할 수 있는 볼프강 바그너가 직접 연출한 이 프로덕션은 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바그너 오페라의 성지라 할 수 있는 바이로이트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을 만큼 한국 공연계의 위상이 드높아진 것은 물론, 연광철, 사무엘 윤, 김재형, 정록기 등 한국이 낳은 성악가들이 직접 무대에 선다는 측면에서 한국인 아티스트의 기량이 세계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광철과 사무엘 윤은 바이로이트에서 고전적으로 활동하는 바그네리안으로 그 입지를 공고히 하였으며, 김재형은 예술의전당이 직접 발탁한 유망주이다. 20년 전 한국인을 주역으로 내세우며 바그너의 오페라를 감당할 여지가 우리에게 있었는가를 고려한다면, 이 공연은 다분히 한국 공연예술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4월 13~1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이 기사는 12월 12일 예술의전당 화재 발생 이전에 작성되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올해 M시어터를 새로 개관하며 레퍼토리의 폭을 한층 더 넓혀 30세의 생일을 자축할 전망이다. 소극장을 리모델링한 M시어터는 693석의 중극장 규모로 객석을 늘리는 한편, 오케스트라 피트를 새로 보강하여 뮤지컬, 발레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무대에 올릴 수 있게 했다. 이 공연장에서는 생택쥐페리의 소설을 각색한 프랑스 뮤지컬 <어린 왕자>(6월 23~9월 2일)와 창작 뮤지컬 <천사의 발톱>(10월 26~12월 14일) 등이 공연될 예정이다. 이 극장에서 상연되는 서울시국악관현악단의 <아리슈뎀>(6월 4일)은 특히 한강 유역의 문화와 역사를 테마로 한, 악가무(樂歌舞), 연희, 교성곡 등으로 구성된 국악 창작작품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이다.

대극장에서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기념공연에 초청되었던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크리스토프 에센바흐 지휘)가 5월 중에 30주년 기념공연을 가질 전망이다. 미국의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의 내한공연 또한 세종문화회관이 생일잔치에 마련한 가장 기대되는 빅 이슈 중 하나로, <돈 키호테>(7월 31~8월 3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를 상연할 예정이다.

중극장으로서 여러 장르를 소화하며 마니아 관객층을 형성한 LG아트센터의 2008년도 기획공연 또한 알차다. 피나 바우쉬와 부퍼탈 무용단이 이번에는 <네페스(Nefes)>를 가지고 다시 서울을 찾으며(3월 13~16일), 클래식 공연의 경우 피아니스트 스티브 허프의 첫 내한공연(6월 1일), 안젤라 휴이트의 바흐 평균율 전곡 연주회(4월 11일, 13일), 앤드류 맨지 & 리처드 이

가 듀오 연주회(6월 14일),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공연(11월 2일)이 애호가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다. 재즈 마니아들은 죽기 전에 소니 롤린스의 색소폰 연주를 이 땅에서 듣게 된 데 감동하고 있으며(5월 23~25일), 월드뮤직 팬들은 몇 번이나 시도하다 좌절되었던 베벨 질베르투(4월 18일) 및 에밀 쿠스타리차 감독이 이끄는 노 스모킹 밴드(6월 24일)의 첫 내한공연 소식에 혈안이 되었다.

클래식 공연은 전반적으로 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야말로 예년에 없던 오케스트라 풍년이라 할 수 있는데 사이먼 래틀이 이끄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내한공연이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예술의전당), 예사 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10월 18~19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로프스키가 이끄는 런던 필하모닉(3월 11~12일 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 BBC심포니(3월 25일 예술의전당), 드레스덴 필하모닉(6월 22일 예술의전당) 등의 내한이 주목된다.

지난 몇 년에 걸쳐 성장세를 보이던 바로크 악단의 원전 연주가 2008년도에는 특히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다. 이 분야에서 애호가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공연은 프라이부르크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3월 26일 예술의전당)이다. 영국 출신의 바로크 바이올린 거장 존 할러웨이 또한 한국 초연(3월 21일 호암아트홀)을 기다리고 있으며, 한국에 이미 고정 팬을 확보한 줄리아노 카르미놀라와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공연도 기다려지는 소식이다. 클래식 공연에서 원전 연주의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애호가층의 선호 대상이 다양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발전 요소라 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불상사를 맞은 <라보엠>의 국립오페라단은 내년을 위하여 국내 오페라단으로서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마련 중에 있다. 올해에 잇달아 선보이는 베르디의 <운명의 힘>(5월 20~25일 오페라극장)과 차이코프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긴>(10월 7~12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엘렉트라>(11월 12~16일) 등은 모두 국내 초연이거나 국내 오페라단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작하는 대형 명작들이다.

서울시오페라단은 세종문화회관에서 베르디의 <트라비아타>(4월 10~13 대극장)와 <돈 카를로>(11월 27~30일 대극장), 모차르트의 <돈 조반니>(6월 18~22일 M시어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연극계에서는 고전이지만 뮤지컬계에서는 신작이라 할 수 있는 <19 그리고 80>은 2008년을 여는 뮤지컬로서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1월 19일~3월 5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이 작품에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있는 연극배우 박정자가 심혈을 기울여 완성시킨 이 뮤지컬은, 진지한 정극이 뮤지컬로 성공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완성도 여부는 현재 위축되어 있는 국내 연극계와 확장일로에 있어 거품시장마저 우려되는 뮤지컬계에 일말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2008년에 또 하나의 주목할 연극은 한일공동연극 <용불고기>(5월 20~25일 예술의전당 토월극장)이다. 역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 예술의전당이 개관 10주년을 맞이한 일본의 신국립극장과 공동 제작하는 합작극이다. 양국의 공연예술계가 서로 어느 정도의 발전선상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노승림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월간 <객석>에서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현재는 음악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 미술

글. 정무정

비엔날레 등 대형 기획전 열려...  
소통과 향유를 위한 미술의 공공성 회복되길

## 무자년에 부쳐

2008년은 무자년(戊子年) 쥐띠 해다. 예지(豫知), 다산 그리고 근면이라는 쥐의 상징적 의미가 미술계에도 널리 퍼져 치열한 창작과 열린 소통으로 복적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돌이켜 보면, 미술계가 작년만큼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적도 없는 듯하다. 미술경매시장의 성장과 아트펀드의 등장으로 미술시장이 활황을 맞이했고, 아마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잘 알려진 미술인이라 할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로 인해 미술관 운영과 미술행정 시스템의 취약성이 도마 위에 올랐으며, 막판에 터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비자금 관련 폭로로 인해 기업 미술관과 비자금의 은밀한 관계에 의혹의 시선이 쏠려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건을 단지 과거의 일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올해의 미술계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미술계의 문제를 진단, 반성해 보는 자세로 내일의 희망과 비전을 설계해야 무자년의 상징성이 의미를 지니게 될 것이다.

먼저, 긍정적 현상이었던 미술시장이 활황을 띤 배경에는 서울옥션, K옥션과 같은 제도적 기반의 확립과 부

동자금의 미술시장 유입이 있었다. 제3의 경매사가 등장할 것이라는 소식에서 알 수 있듯, 금년에도 미술시장의 제도적 기반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술계에 부는 세계화 현상으로, 미술시장의 지역적 한계가 확장되고 경매제도의 선진화도 앞당겨질 것이다. 좀더 투명한 거래관행의 마련과 미술품 감정을 위한 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다양한 고객층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진다면 미술시장의 외형이 1조 원대까지 성장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활황이 갈 곳을 잃은 부동자금의 일시적 도피로 인한 현상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부인할 수는 없다. 미술품이 '화(畵)테크'로만 여겨지는 세태로 인해 이미 고인이 된 이중섭과 박수근의 신작이 제작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미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와의 소통을 꿈꾸는 많은 미술인들에게 씁쓸함을 느끼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다고 미술품이 재테크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일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일만은 아니다. 문화의 개화에는 어떤 경로든 황금 뱀줄이 연결되어 있었다. 새해에는 투자와 문화의 향유라는 가치를 양립시킬 수 있는 문화소비 형태가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두 번째로 신정아 사건과 김용철 변호사의 고발은, 미술계가 학연 등의 인맥에 좌우되고 공공문화재단이 기업의 사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등 허술한 미술관 운영과 취약한 미술행정 시스템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계기였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개인적인 영역만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만연했다. 문화예술계 기관과 단체의 수장이 특정 단체와 정치적 성향의 인사로 채워졌고, 그로 인해 자유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하는 문화예술이 단조롭고 획일적인 모습을 띠게 되었다. 오죽했으면 삼성 관계자에게서 "사실 컬렉션을 공공재단(삼성문화재단)에 넘겼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삼성가는 재단을 마치 사유물처럼 여겼다. 서구 미술관처럼 이사회에 의사결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오직 관장에게만 힘이 집중되었다. 소유·경영 분리도 없었다. 운영권을 꼭 쥔 채 자기들 취향으로 미술관을 이끌고, 개인 컬렉션 관리 기능까지 떠넘기다 보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진보진영 연출가에게서 "지금처럼 문화예술계 기관·단체장이 진보진영 인사들로 몰갈이되는 '획일성'이야말로 문화발전을 위해 가장 경계해야 할 성향"이라는 비난이 제기되었겠는가.

작년 12월 초에 열린 미국 바젤 마이애미 아트페어 전시장 입구 기둥에는 "모든 사람의 미적 감각은 제각기 다르다"는 미국 팝작가 앤디 워홀의 경구가 붙어 있었다고 한다. 제각각의 개성을 다양하게 조율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인사와 행정 시스템의 마련이 요구된다. 무자년 새해가 이사회 제도를 통해 재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고려가 아닌 문화예술의 발전이라는 대의를 고려하는 인사와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어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려는 노력으로 분주한 한 해가 되길 희망한다.

새해에 바라는 또 다른 희망은 미술의 소통과 향유

를 위한 미술의 공공성 회복이다. 물론 미술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들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공미술의 확산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미술의 공공성은 전시와 기획의 차원을 의미한다. 대형 블록버스터 전시가 공·사립 미술관에서 많이 열리는 추세이나 외국 미술가의 유명세를 이용해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비엔날레 같은 대형 기획전도 소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틀에 갇혀 그들만의 리그로 끝내버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러한 전시는 미술의 대중화가 아닌 우중화(愚衆化)를, 미술의 공공성이 아닌 배타성만을 양산할 뿐이다. 기획과 작품 선정 과정에서 전시 주제와 전문성 외에 소통과 향유의 공공성을 고려한다면 좀더 풍요로운 미술문화 형성의 바탕이 되리라 믿는다.

올해의 미술계는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등 굵직한 기획 행사로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또한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아시아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도 증폭될 것이다. 한국의 정서와 미감을 미술로 승화시켜 세계의 무대에서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흔히 '무'라고 하면 없음을 연상하지만 정반대로 무성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8년 미술계가 정해년(丁亥年)의 파장을 극복하고 무자(無子)가 아닌 무자(茂子)의 한 해를 맞이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 정무정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덕성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에서 서양미술사 전반을 가르치며 전공은 서양현대미술이다.

최 해 리

덕성여자대학교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덕성여자대학교 동양화과, 시각디자인과 졸업 **개인전** 2007 'SMOKE, NOWHERE', 스페이스 바바, 서울 **단체전** 2007 '열 - 신진작가수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사미술공간, 서울 / 2007 '제7회 송은미술대상전',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7 '제29회 중앙미술대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서울 / 2006 '이상한 초대', 갤러리 스키프, 서울 / 2005 '제3회 시사회-팀 프리뷰 작가교류 프로그램', 대안공간 팀 프리뷰, 서울 **수상** 2007 '제7회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송은문화재단 / 2007 '제29회 중앙미술대전', 선정작가, 중앙일보사 / 2006 '2007년 송은갤러리', 선정작가, 송은문화재단



박용식

2001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졸업, 1997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개인전** 2007 선상에 서다(갤러리 스퀘이프, 서울) 2006 YS ENTERTAINMENT CO. 젊은작가 지원 기획전 (유아트스페이스, 서울) 2004 混成素子-아트스페이스 휴 기획전(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휴, 서울) 2003 SOMETHING & SOMETHING-갤러리창 기획초대전(갤러리창, 서울) 1999 지구를 지켜라(갤러리보다, 서울) **2인전** 2006 상상혼합 展(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단체전** 2007 ARTSAFARY-미술관 봄나들이(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7 노아의 방주展(국립현대미술관, 경기과천) 2006 SEO+LOVE+MEMORY展(세오갤러리, 서울) 2006 CROSS-OVER 2006 / 공존된 시간展(세오갤러리, 서울) 2006 헤이리 판 페스티벌-물티올티 크로스오버展(헤이리에술마을 마음등불, 경기파주) 2006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또 다른 이미지의 힘展(샘지스페이스, 서울)



# 앙팡테리블, 예술영재가 되기까지

2 1 세 기

예 술 을

이 끌 어 가 는

주 체

“미안하다, 고맙다.”

동아일보 2007년 창간기획으로 연재된 ‘21세기 新천재론-지능이 아니라 재능이다’에 소개된 영재의 면모를 보면서 느낀 소감이다. 이 연재기획은 집단따돌림 문화가 팽배하고 ‘천재도 둔재로 만든다’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각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배출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서 출발했다.

아시아게임에 이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건 박태환(18), 피겨스케이팅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한 김연아(17),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1위를 차지한 박세은(18)……. 여기엔 2006년 리즈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한 김선욱(19), 2005년 폴란드 쇼팽콩쿠르 결선에 진출한 손열음(21), 2001년 뉴욕 필하모닉 영아티스트콩쿠르 최연소 우승자 김지용(15) 등도 포함된다.

어느 정도의 해답은 나와 있다. 첫째는 경제성장이 가져온 환경 변화다. 식생활 변화로 인한 신체 조건의 향상, 다양한 스포츠 인프라의 구축, 잦은 해외여행을 통해 익숙해진 국제 감각이 가져온 신세대 특유의 자신감 등. 이런 외부 조건의 변화가 한국인의 집단주의식에 설정된 잠재력의 임계치를 돌파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됐을 것이다.

둘째는 정치적 민주화가 가져온 ‘재능의 민주화’다. 18세 혁명의 주역들은 공부를 잘하는 전통적 천재가 아니다. 암기력 좋고 수리계산능력이 탁월한 지능형 천재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혼신의 열정을 다하는 재주꾼들이다. 산업화시대에 출세의 정검다리였던 ‘공부’라는 사슬에서 풀려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됐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이다.

## 신천재론에 담긴 세 가지 의미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더 구체적인 데 있다. 그들의 재능의 정체는 무엇이고, 어떻게 발현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교육적 측면이다. 교육공화국이란 말만 무성하지 열악하기 그지없는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 그들의 재능이 빛을 발할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그들은 저주받은 한국 교육시스템의 돌연변이인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의 빛줄기인가. 또한 아이들의 재능을 발현시키는데 본성(nature)이 더 중요하냐, 환경(nurture)이 더 중요하냐는 해묵은 논쟁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이다. 이견희 삼성그룹회장의 천재경영론처럼 ‘한 명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면, 그러한 성장동력으로서 ‘천재’들을 더욱 많이 발굴하기 위해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으로서 HR(Human Resource)개발이란 측면에서 이들 신천재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할 것인가.

셋째, 정치적 측면이다. 한국인에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분야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룬 그들은 탈민족주의 시대에 ‘공동체에 대한 사랑(카리타스)’을 불러오는 원천이 되었다. 그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을 수많은 젊은 재능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관심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내 아이’에게로만 집중된 국민의 관심을 ‘우리 아이들’이란 보다 넓은 지평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양광테리블,  
예술영재가 되기까지

다중지능(MI)이론을 통해 본 예술영재

우리는 이를 규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두 가지 이론을 도입했다. 첫 번째는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 교수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이론이다. '8과 1/2' 지능론으로 불리는 다중지능론은 인간 뇌의 특정 부위와 직접적 연관관계가 입증된 언어, 음악, 논리수학, 공간, 신체운동, 인간친화, 자기성찰, 자연친화라는 독립된 8개의 지능 및 영적 능력과 관련된 가설 단계의 실존지능으로 구성된다. 가드너 교수는 이 다양한 지능이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재능의 발현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가 이를 토대로 만든 다중지능(MI)적성진로진단검사를 신천재들에 대해 다중지능적 성검사를 적용한 결과, 신천재들은 대부분 해당 분야의 지능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한 다른 지능과 결합해 묘한 화음을 빚어내는 경우도 많았다.

발레리나 박세은 양의 경우는 신체운동에서 상위 2.8% 안에 드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박 양은 로잔콩쿠르에서 객석을 향해 7도 정도 경사진 유럽 무대에 처음 섰지만 놀라운 적응력으로 이를 극복했는데, 공간지능도 역시 상위 10% 안에 들 만큼 높았다. 반면 다른 분야는 보통 정도의 적성을 보였고, 언어 적성은 오히려 하위 30%로 낮았다.

18세의 나이에 동아일보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당선된 홍지현 양은 언어지능이 상위 0.7~0.5%에 들 만큼 뛰어나게 높았다. 동시에 논리수학지능도 상위 5% 안에 들 만큼 높았다. 미국의 영화잡지 <필름 메이커스>가 주최한 단편영화시나리오 공모전에서 2등을 차지하며 예일대학에 입학한 구혜민(19) 양은 시각예술 분야

종사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공간지능이 상위 0.1%에 들 정도로 높았다. 뿐만 아니라 언어와 자기성찰, 논리수학이 모두 상위 5%에 들 만큼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쉽게도 음악영재에 대해선 MI검사를 실시할 수 없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특이한 점은 논리수학지능이 높은 경우 음악지능도 함께 높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컴퓨터영재인 남예슬(16) 양의 경우에는 자연친화, 음악, 신체운동, 인간친화, 논리수학, 언어 지능이 모두 상위 3% 안에 드는 진정한 다중천재로 조사됐는데, 음악지능이 논리수학지능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제수학 올림피아드에서 금상을 수상한 이석형(16) 군의 경우도 논리수학지능 못지않게 음악지능과 언어지능도 높게 나타났다.

IDF모델을 통해 본 예술영재

두 번째 이론은 '몰입'의 심리학으로 유명한 미하이 칩센트미하이 미국 클레어몬트대학원 교수가 개발한 'IDF 모델'이다.

IDF모델은 천재가 탄생하기 위해선 개인적 소질(Individuality)과 자신의 재능이 빛날 수 있는 적재적소(Domain)로의 진입, 경쟁의식을 복돋아주면서 자신감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심리적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마당(Field) 등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 또한 신천재에게 두루 맞아떨어졌지만 예술영재의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뉴욕 필하모닉 영아티스트콩쿠르에서 10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우승한 김지용(16) 군은 네 살 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피아노 연주를 펼쳐 그 소질(I)을 일찍부터 드러냈다. 여섯 살 때부터 정식 피아노교육에 입문

한 그는 아홉 살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뒤, 클래식매니지먼트 회사 IMG와 최연소 나이에 계약을 맺으며 적재적소(D)를 찾아갔다. D단계에서는 10년 정도 재능을 식히고 담금질하는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다. IMG가 지용 군의 재능을 본격 꽃피울 시점을 20대로 잡고 영재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용 군은 주말에만 줄리어드음대 예비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음악교육을 받고 평일에는 공립고등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학생생활을 하고 있다. 콘서트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 재용 군의 꿈을 펼칠 마당(F)은 음악무대를 훌쩍 뛰어넘는다. 그의 꿈은 위대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사회적 자산으로 삼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자선활동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세 나이로 장장 9시간 20분에 걸쳐 판소리 '수궁가'와 '심청가'를 연달아 완창한 김주리(15) 양도 네 살 때부터 자신의 끼(I)를 드러냈다. 아버지가 듣는 판소리 테이프를 듣고 사설을 따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리 양은 이후 소리선생을 찾아 해남, 광주, 부산, 인천, 서울로 옮겨 다니며 혹독한 소리공부(D)에 매달렸다. 명창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는 토혈(吐血)을 이미 초등학교 2학년 때 치렀을 정도였다. 주리 양의 진짜 마당(F)은 대학입학 이후에 펼쳐질 예정이다. 그때까지 '춘향가'와 '흥부가' 그리고 '적벽가' 등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완창하는 것을 목표로 공부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발레리나 박세은 양과 2007년 동아무용콩쿠르 발레 부문 금상을 수상한 이동훈(21) 군의 경우는 대기만성형이라 할 수 있다. 박 양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한 발레에서 두각을 나타내는데 10년이 걸렸다. 발레학원에서 1년 유급을 당했고 발레영재가 모두 거쳐 간다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비학교에 응시해 한 차례 떨어지기도 했다. 그런 박세은 양이 2006년 미국의 잭슨콩쿠르에서 금상 없는 은상을 수상하고 젊은 발레리나에게 최고의 영예라는 로잔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10년 가까운 숙성 기간(D)이 끝나자마자 활짝 꽃핀 재능은 올해 9월부터 USA발레시어터라는 마당(F)을 만나면서 알찬 열매로 영글어지고 있다.

대학입학 전까지 사설 발레학원에서 배운 발레 솜씨, 그것도 개인레슨 한 번 받지 못했던 이동훈 군의 경우는 더욱 극적이다. 그는 예술중학교나 예술고등학교도 거치지 않고 인문계 중고교를 다니다 뒤늦게 발레에 뛰어들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인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비보이로 춤에 입문해 중3 때는 이미 '초인'이란 닉네임으로 유명한 비보이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역시 9년여의 숙성기간을 거쳤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능의 집단 발현과 이를 먼저 알아본 부모와 교사

어느 나라나 기성세대와 차별되는 젊은 재능이 집단적으로 발현하는 시대가 있다. 프랑스의 작가 장 콕토는 이를 '무서운 아이들'이라며 '양광테리블'이라고 불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일단의 영국의 젊은 작가들이 현실비판의 목소리를 펼칠 때는 이를 '성난 젊은이'라는 뜻으로 '앵그리 영 맨'이라고 불렀다.

21세기 한국에서도 그런 젊은 재능의 집단 발현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무서운 아이들'도 아니고 더더욱 '성난 아이들'도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미쳐 있고, 기성세대에 주눅 들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밝고 당당한 자신감으로 무

양광테리블,  
예술영재가 되기까지

장되어 있다. 그들은 불꽃처럼 밝고 정열적이면서 영민하다. 또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비출 줄 아는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래서 '브라이트 제네레이션(Bright Generation)'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이들을 만나본 우리의 결론은 "신은 우리 사회 곳곳에 빛나는 보석을 무작위로 흩뿌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숨겨진 원석을 어떻게 발굴하고 빛을 발하게 할 것이냐이다.

유감스럽게도 한국사회에서 재능의 발현은 대부분은 밝은 부모와 교사의 헌신으로 이뤄졌다. 그들은 아이들의 열정에 주목했다. 아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재능을 지니고 있는지를 관찰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에 '다 걸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김지용 군의 부모는 둘 다 초등학교 교사였지만 아이의 장래를 위해 안정된 직장을 버리고 미국으로 건너가 힘들게 세탁소를 운영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아들의 재능을 조기 발현시키기 위한 교육을 거부하고 평범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인성교육을 쌓도록 한다. '정의론'으로 유명한 존 롤스의 철학을 아들에게 불어 넣어주기 위해 "네 재능은 네 것이 아니니 이웃을 위해 써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김주리 양의 부모는 딸을 위해 전셋집을 전전하며 전국을 떠돌고 있다. 소리선생을 찾아서기도 하지만 복장단과 소리연습이 시끄럽다고 1년 만에 쫓겨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보컬리스트 출신의 아버지가 직접 북채를 잡고 딸의 소리공부를 돕느라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클래식 음악만 해도 영재를 후원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많지만 국악계는 그런 후원자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한다.

이동훈 군은 중학교 시절 무용과 출신이었던 체육교사의 권유로 발레에 눈을 떴다. 동훈 군의 부모는 여러

운 집안 사정과 '남자가 무슨 발레'라는 선입견에 처음엔 반대했었다. 하지만 동훈 군의 재능을 알아본 발레학원 원장이 "나중에 형편이 나아질 때 수강료를 내도 된다"는 설득 끝에 발레를 계속할 수 있었다.

구혜민 양은 민족사관고 사상 처음으로 입학 때부터 장래 희망을 영화감독으로 꼽은 학생이었다. 그런 혜민 양이 꿈을 지켜가도록 도와준 사람 중에는 혜민 양의 재능을 알아본 고1 때 담임교사가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컴퓨터와 비디오를 전공한 미술교사였는데 단 한 명의 제자를 위해 해외 단평영화제 수상작을 모은 DVD와 영화 관련 영문책자를 대거 장기 대출하여 학교도서관에 몰래 갖다놓았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혜민 양은 그 자료를 다 섭렵했고 이를 통해 익힌 시나리오작법으로 예일대 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숨겨진 원석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문제는 이런 눈 밝은 부모와 스승을 만나지 못해 재능을 발현하지 못하는 수많은 원석들이다.

문용린 교수도 "한국의 신천재들이 대거 출현한 것에는 역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컸다"며 "한국사회가 고민할 것은, 부모들의 개인적 노력으로 이러한 신천재들을 키워내는 동안 공교육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반성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산하 영재교육센터에 따르면, 영재교육 시스템을 잘 갖췄다고 알려진 이스라엘에서는 진짜 천재를 1년에 열 명만 선발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중지능 중 몇 개가 뛰어난 상위 1.5% 안에 드는 수재와 다중지능 중 한두 개라도 탁월한 상위 3%에 드는 영재에게 별도의 영재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반면 한국의 영재교육은 0.9%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중 70~80%는 과학과 수학능력이 뛰어난 이공계 영재에게만 집중되고 있다. 영재교육센터의 김미숙 소장은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이공계에만 집중된 영재육성교육을 인문계와 예체능계로 최소 3%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선 최소 현재의 3배 이상의 영재가 재능을 발현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평준화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한국 교육의 병폐 때문이다. 한국 교육은 본성(nature)보다 환경(nurture)을 더 중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유전자 연구에 따르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보다 인간의 유전자가 지배하는 본성이 더 중요하다는 성과가 나왔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신은 우리 아이들의 재능을 무작위로 흩뿌린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재능의 원석을 최대한 발견해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도록 갈고 닦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교육은 'nature or nurture'가 아니라 'nature & nurture'로 전환되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모든 아이가 신천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 아이들이 지닌 재능의 민주화와 다원화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수능성적과 영어성적이란 잣대만으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하고 어리석은 짓인지를 깨닫게 해준다. 그것은 평준화와 객관적 평가라는 우상에 빠져 천차만별의 재능을 가진 아이들의 날개를 한 가지 재능이라는 사슬로 묶어 버리는 짓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신천재는 될 수 없을지라도 그들 중에 빌 게이츠와 조앤 K 롤링이 나온다면 다른 아이들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다. 당장 김연아와 박태환이라는 신천재의 등장이 비인기 종목이었던 피겨스케이팅과 수영 관련 스포츠산업을 얼마나 활성화시켰는지 파급 효과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예술 분야에서도 한 명의 천재가 가져오는 문화산업적 가치는 더 말

할 필요 없다. 따라서 우리 아이의 독특함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다양성을 먼저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21세기 한국이란 공동체에 대한 사랑의 원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먼저 인간이 되라'는 유교적 교육방법이 무수한 재능의 발현을 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인성교육이 먼저 이뤄진 뒤에 재능을 계발시켜야 한다는 발상은 잘못이다. 인성교육은 오히려 평생 이뤄져야 할 문제지만 아이들의 재능은 조기 발굴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예술교육의 문제는 아이들의 재능 그 자체에 집중되지 못하고 인간성이나 인간관계니 하는 휴먼 이펙트(Human Effect)에 너무 얽매어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예술교육은 역설적이게도 '이기는 법'만 가르치고 '즐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한국 스포츠교육의 맹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김지용 군의 사례처럼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선 10년 이상의 숙성기간을 내다보는 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인간과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애정을 심어주는 노력이 가미되어야 한다. 우리의 예술교육도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앞장서 나가는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의 뒤에서 그들의 다채로운 재능이 빛어내는 화음을 감탄하며 즐기는 여유를 갖춰야 한다.

한국의 브라이트 제네레이션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것은 국가와 사회가 그런 인식과 시스템을 갖추기 전에 스스로 이를 터득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안함과 고마움을 털어내기 위해선 이제 우리가 그들의 뒤를 따라야 할 차례다.

권재현  
동아일보 문화부 기자. 동아일보에 입사, 국제부를 시작으로 사회부를 거쳐 현재는 문화부 소속으로 있다. 재직 중에도 꿈을 내어 《한 진의 선식》을 발간하는 부지런함과 더불어 문화현상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시각을 갖고 있다.



한때 음악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 음악가와 음악 사조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 때때로, 서로 다른 음악과 예술가를 선호할 때 어느 것이 더 낫다는 등 하며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한참을 입씨름 하고 나서 그 열정에 반하여 술동무가 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사실 이런 일은 음악뿐이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 장르에서 일어났다. 심지어는 만화나 게임 같은 대중문화를 좋아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어떤 작가는 대작을 만들어 훌륭하고, 어떤 작가는 통속적이어서 별로라고 말하면서 파벌을 짓기도 했다.

문득 이 글을 쓰기 위해 앉아 옛 시절을 떠올려 보니, 예술가와 예술 사조를 둘러싼 이처럼 불꽃 튀는 갑론을박을 언제 마지막으로 했는가 싶다. 예술가를 사랑하던 순수한 애정은 온데간데없고, 우리를 둘러싼 수없이 많

은 매체들과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한 문화예술 작품들 사이에서 미아가 된 기분이다. 정말로 세월의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나 문화예술이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앞에서 황망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미 알다시피, 문화예술은 하늘 위 고고한 곳에서 땅으로, 그것도 바로 내 코앞까지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화예술 패러다임에 대지진이 발생하는 현상은 시대가 변화하고 있는 징후라고 여겨진다. 우리는 문화예술을 선망하는 시대에서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벗하는 시대로 이행 중인 것이다. 이 말은 곧, 문화예술을 '결과물인 작품'이 아니라 '행하는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기도 하다. 과정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강력한 교육적 화두이다.

과정 혹은 실행(practice)이 이토록 목직한 화두로

던져지게 된 까닭은 지난 세월 우리가 '삶의 과정'을 도외시하고 살아온 탓이다. 생각의 단초를 열고, 행동하는 삶을 살며, 갈등의 조정을 제공하는 기회들 즉, 발견하고, 느끼고, 궁금해하고, 의문을 품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경험적 과정이 생략되었던 것이다.

우리의 삶의 너무 깊은 곳까지 격식과 명분의 비대함은 물론 다툼의 과잉이 있었고, 연장자와 권위자 중심의 수직적 사회시스템은 이런 '과정'의 생략을 더욱 부추겼다. 위로부터 내려온 과제를 성실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내는 저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굴 수는 있었으나, 그 이면에는 항상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힘이 결여되어 있었다. 결국, IMF 이후 대한민국에 던져진 가장 큰 시련의 이름은 다름 아닌 '창의성의 결핍'이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조용하게 인내하는 삶을 미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수동적인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 기업들은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날로 치열하게 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야말로 인간의 근본적인 사고방식과 정서적 토대를 규정짓는 문명의 산물로, 창의성의 뿌리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나라 안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시도 중이다.

특히, 모이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발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이 부상하고 있는데, 삼성애니콜 구미사업장의 'Pro team'과 'Family', 광명시 평생교육원의 '학습동아리', 성남문화재단의 '사랑방 문화클럽' 등이 많이 알려진 사례에 속한다.

삼성애니콜 구미사업장과 광명시 평생교육원의 경

누구나 문화예술을 벗하는  
시대를 향하여



우, 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단계부터 지원을 시작하여 이를 사업성이나 평생교육과 연결 짓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구미사업장 인력개발팀의 진정한 팀장의 입버릇처럼 ‘사막을 옥토로 바꾸기 위해’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씨앗을 뿌리겠다는 비전을 추진력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후발 주자인 ‘사랑방 문화클럽’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자발적 문화예술 커뮤니티들을 발견하는데 주력하였다. 조사 결과, 성남시에는 1000여 개의 문화클럽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그중 300여 개의 클럽들로부터 설문문을 받는 동시에 네트워크 작업을 시작하였다. 순수하게 시민들로만 구성된 클럽지기네트워크모임이 결성되었고, 수차례 워크숍을 진행한 결과, 운영위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운영위원회는 타 사업에서 교육센터가 행하던 사업 계획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기구이며, 민관 협치의 다리 역할을 한다. 지난 10월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랑방 문화클럽 축제’가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창조해 나

가는 시민의 축제’라는 슬로건 하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문화클럽들을 위한 공간 역시, 센터를 짓기보다는 지역 안에서 공간 나누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현재 4호까지 사랑방조인(join)식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런 시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온갖 ‘과정’을 누락시킨 채 살아온 기성세대가 자신만의 가치를 일구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 사회와 일터에서 삶의 의미를 찾도록 이끌어간다는 점에서 좀더 폭넓게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 세대가 주체적·자발적으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무엇보다 문화와 예술은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적 도구로써 각광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는 등 차분히 기초가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문화재단 역시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미래 세대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새롭게 시범 사업으로 지정된 만화·애니메이션 수업

의 경우 본격적으로 장르 간 교류를 통해 체험형 통합 교육에 도전하고 있다. 장르 통합 교육에서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점은 교사들 본인이 체험 교육을 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문화재단은 이에 대응하여 문화매개자 전문교육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교사가 먼저 창의적인 체험을 하고, 이질적인 장르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통합적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은 미래 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의 언러닝(unlearning)과 재교육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업 지도안과 교육 보조교재를 개발하기 위해 교사들이 직접 발로 뛰고 네트워킹한 경험은 그대로 미래 세대의 지적 자산으로 내리 물림될 것이다.

문화예술의 진정한 가치는 창조를 가능케 하는 몰입에 있으며, 이 몰입의 과정이 삶의 가치를 드높인다는 점에서 문화예술 향수권뿐 아니라 창조권 역시 우리의 삶에서 몹시 필요하다. 여태껏 창조 행위를 즐길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제반 여건이 부족하여, 예술 행위의

주체는 배고픔을 이겨낼 줄 아는 예술가 상태를 벗어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현재 문화예술 감상과 향수의 문턱이 낮아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문화예술 창조 행위의 주체가 시민, 대중이라는 불특정 다수로 변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경향성을 기민하게 감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 문제를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는 노하우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부족하다. 때문에 앞으로 많은 시도가 실패와 성공의 부침을 겪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때 모쪼록 이 사회가 관용과 성숙의 마인드로 실패를 감싸 안을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창의성을 육성하려는 현재의 시도들은 결국 이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통과해야 만날 단계이기 때문이다.

● 사진은 성남문화재단에서 제공해주셨습니다.

**김유진**  
연세대학교에서 조한혜정 선생님을 졸출 따라다니며 공부를 하였고, 하자센터와도 종종 어울려 놀았다. 이 동네에서 맺어진 여러 인연에 힘입어 일상적인 창조, 조직의 창조성 증대, 자발적인 커뮤니티(CoP)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현재 가치창조공동체 공공공공의 일원이며,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성남시의 문화클럽들을 지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있다.



예술의 새로운 지형

# 우리의 손끝으로 세상을 바꿔요

효제초등학교에서 열린 서울문화재단 호기심예술학교 제1탄, '마법예술학교'



“이 강아지는요, 틴틴 할아버지가 외로울 때 옆에 있어 줄 거예요. 똑똑해서 심부름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영웅 군은 PT병을 이리저리 대보며 어디에다 붙일지 골똥히 생각 중이었다. 그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까지 하다. 작품의 재료는 플라스틱 바가지, PT병, 수수깡 등 폐품이 전부였다. 그러나 영웅 군은 이 가난한(?) 재료를 가지고 불쌍한 틴틴 할아버지를 위해 심부름 하는 강아지를 만들었다. 다른 편에서는 한 남자 어린이가 지점토에 여러 가지 무늬를 정성스럽게 찍어내고 있었다. 쿠키를 만들어서 얼른 쿠키의 집을 완성해야 무시무시한 과자집 할머니로부터 헨젤을 구해낼 수 있단다.

서울문화재단에서는 효제초등학교에서 11월 30일, 12월 1일 이틀 동안 1, 2, 3학년 재학생 중 90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호기심예술학교 제1탄 '마법예술학교'를 운영했다.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이틀 동안 아이들은 '학생'이 아닌 '예비 마법사'로 불리며 다양한 과제를 수행했다. 미술과 교육연극이 결합된 마법에

술학교에서 아이들은 꼬마 마법예술사로 거듭나는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다. 아이들은 마법 망토를 두르고, 구호 대신에 주문을 외웠다. 아이들은 작업 재료에 따라 구분되어 있는 3개의 마법방을 거치면서 상황에 맞게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꼬마 예비 마법사들은 점토로 쿠키의 집 만들기, 종이 접기, 폐품 공작 등의 주어진 과제를 잘 수행한 뒤 모두 정식 마법사로 임명받았다.

예비 마법사들은 하나같이 진지한 자세로 과제에 임했다. 점토를 만질 때에도, 종이를 접을 때에도 아이들의 손놀림과 눈빛은 매 순간 진지했다. 공동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는 성숙한 태도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이 진지하게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뚜렷한 동기 부여 때문이었다. 무작정 그리고 접고 붙이는 대신, 매 과제마다 정해진 이야기 속에서 아이들에게 임무를 주었다. 쿠키의 집을 만들어 헨젤을 나쁜 마법사로부터 구출해야 하며, 폐품을 이용해 가난한 틴틴 할아버지의 집을 만들어주

고, 위로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설정된 이야기 안에서 아이들의 상상력 역시 최대한 발휘되었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미술 담당 교사는 “아이들의 상상력이 어른의 상상력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면서, “어른들이 절대로 상상하지 못하는 기발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특히 이날은 방송인 박경림이 1일 마법학교 교장으로 참여해, 아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박경림은 90명 모두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나눠주고, 마법 모자를 씌워주며, “이제는 예비 마법사가 아닌 정식 마법사가 되었으니, 여러분의 손끝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

수업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해당 학교 교사는, “한 학년에 한 반씩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안타깝다. 참여하지 못한 반의 선생님들이 ‘왜 우리 반은 안 해주냐’고 아쉬워했다”며, 제한된 기회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교육장(체육관) 문틈 사이로 훑쳐보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이러한 창의적인 예술교육이 좀더 많은 아이들에

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하루빨리 조성해야 함이 절실하게 느꼈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대다. 이제는 과거의 기능 연마 위주의 예술교육이 아닌 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는 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의 호기심예술학교 '마법예술학교'의 현장은 그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는 행사였다. 글. 전지영 <문화+서울> 취재기자





어린 시절을 잠식했던 동화 속 쥐 떼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은 우리에게 '쥐'란 아무래도 비호감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릴 적 추억 따위야 어쨌든 2008년 무자년(戊子年) 쥐띠 해는 어김없이 돌아왔고, 알고 보니 쥐라는 존재는 의외로 친숙하게 다가온다. 영민함을 넘어 지혜롭기까지 한 이 친구, 쥐는 우리와의 오랜 동거가 있었다.

“나를 쥐라고 불러줘.”  
 그가 말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지?”  
 “잊어버렸어.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 처음 얼마 동안은 그렇게 부르면 불쾌했지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사람은 무엇이든지 익숙해지는 법이거든.”  
 무라카미 하루키의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중에서

이러나저러나 하루키의 말에는 언제나, 결국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무턱대고 자신을 '쥐'라고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친구와 함께했던 그해 여름을 첫 소설에 담은 무라카미 하루키는 동물과의 은근한 유대감을 즐기는 작가다. 《양을 쫓는 모험》속 양 사나이, 세계의 태엽을 감는 새(《태엽 감는 새》), 세계의 끝에서 돌아다니는 일각수(《세상의 끝과 하드보일드 원더랜드》), 게다가 '돌고래 호텔'과 '코끼리 공장'에 '캥거루 날씨'까지. 이중에서도 '쥐'는 하루키의 원형과 같은 존재다. “왜?”라고 묻는다면 딱히 할 말은 없다. 하루키 스스로 밝힌 바, 아주 오래전의 일이지 잊어버린 데다가 사람은 무엇에든지 익숙해지는 까닭이다. 그에게 군조문학상을 안긴 데뷔작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에 이은 초기작 《1973년의 핀볼》에서도 예의 쥐 친구는 어김없이 등장한다. 여러 산문집에서 드러난 대로 정작 현실의 그가 애달아하는 애완동물은 쥐의 대척점에서 있는 고양이 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의하면 '쥐목 비단털쥐과'에 속하는 '애완쥐' 햄스터가 호사를 누리는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을 잠식했던 동화 속 쥐 떼에 대한 기억이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은 우리에게 '쥐'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은 아무래도 호감보다는 비호감 쪽에 가까운 편이다. 매년 연말 각종 무대를 수놓는 레퍼토리인 발레 《호두까기 인형》속 쥐 대마왕의 존재도 그렇고, 게다가 추억의 미국 드라마 〈브이(V)〉의 그녀, 다이애나가 흰쥐를 한껏 높이 쳐들어 서슴없이 먹어 제치던 그 놀랄 만한 실루엣을 기억에서 지우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어릴 적 추억 따위야 어쨌든 2008년, 무자년(戊子年) 쥐띠 해는 어김없이 돌아왔고, 알고 보니 이 '쥐'라는 존재는 의외로 친숙하게 다가온다. 그것도 꽤나 말이다.

의외로 가까운 친구

쥐라는 존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원천은 실은 일정 부분 서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양의 십이간지(十二干支), 즉 열두 띠 동물 중 정북 방향을 가리키는 존재인 쥐의 해는 풍요와 희망과 기회의 해로 여겨진다. 이렇듯 동양에서 재물과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동물인 쥐가 그간 서양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꾸준히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재물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근거로 여겨지는 엄청난 번식력 때문이었다. 중세 유럽에 죽음의 병 페스트를 만방에 퍼뜨렸던 설치동물의 선봉장이었던 쥐는 당시 공포와 혼돈의 이수라장을 뒤덮고 우뚝 선 존재였고, 이즈음 문학작품에 종종 등장하는 무섭도록 징글징글한 '쥐 떼'의 이미지는 이 지점에서 양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더불어 보통 '실험용 흰쥐'로 비유되는 희생양적인 이미지 또한 긍정보다는 부정에 가깝다. 이를 상징하는 작품으로는 휴고상과 네블러상을 수상한 미국 소설가 대니얼 키스의 소설이자 미국 교과서의 학습자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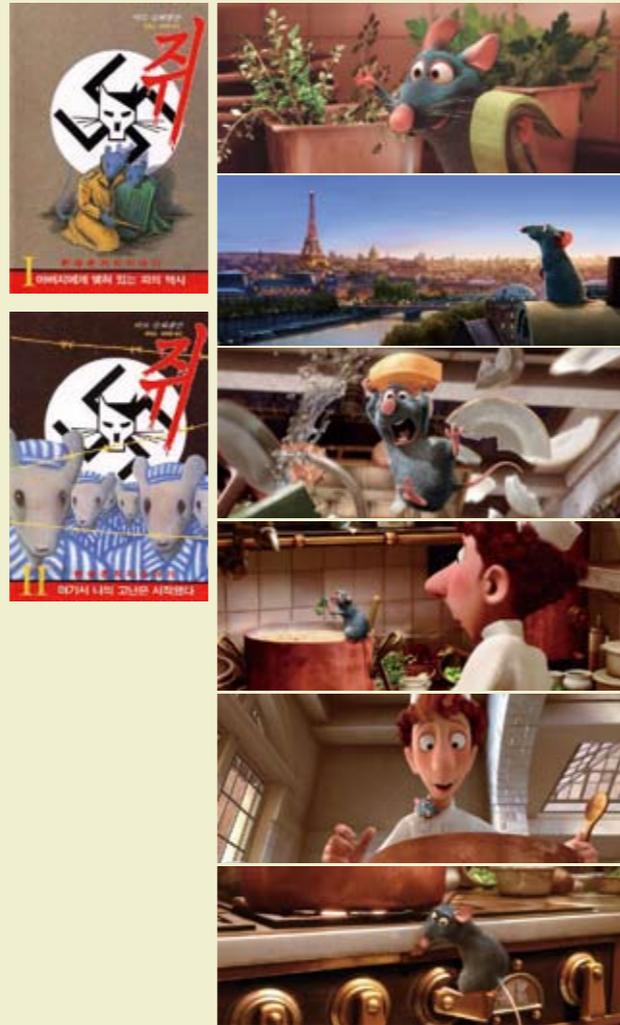


채택된 바 있는 《앨저넌에게 꽃을(Flowers for Algernon)》이 대표적이다. 이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 국내 무대에 올랐던 <바보 신동섭>(2005)과 <철수 이야기>(2005), TV 드라마 <안녕하세요 하느님> 그리고 지난 2006년에 이어 2007년 연말 현재 진행 중인 창작뮤지컬 <미스터 마우스(Mr. Mouse)》속 주인공은 항상 주머니에 이 실험용 흰쥐를 넣고 다닌다. IQ 70 수준에 일곱 살 정도의 정신연령을 가진 이 30대 남자는 우연찮은 기회에 수술 후 IQ 180에 다다른 지능을 얻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실험용 흰쥐는 죽고 주인공은 다시 본래의 바보스럽고도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간다. 죽은 목숨으로 태어난 운명이니 죽어야 마땅한 실험용 흰쥐와 같은 운명의 선상에 섰던 까닭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쥐의 이러한 부정적인 면모를 타파한 선두주자 또한 서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 미국 연예정보지 《버라이어티(Variety)》가 창간 100주년을 맞이해 대대적으로 공표한 '20세기 아이콘 베스트 50'의 목록에는 비틀즈, 루이 암스트롱, 험프리 보가트, 말론 브랜도, 찰리 채플린, 제임스 딘, 마릴린 먼로, 엘비스 프레슬리 등과 '미키 마우스'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그렇다. 1928년 월트 디즈니가 그해 11월 18일 세계 최초의 유성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를 통해 데뷔시킨, 어느덧 내년 쥐띠 해에 여든 해 생일상을 받아먹을 그 미키 마우스다. 보잘것없는 '쥐새끼'를 일약 스타로 등극시킨 디즈니의 활약 이후, 그간 명실 공히 '어둠의 자식'이었던 쥐의 본격적인 활약 무대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었다. 미키 마우스의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주자는 1940년대 극장용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출발해 1975년 텔레비전에서 방영되기 시작한 또 다른 클래식 애니메이션, 조지프 바버라의 <톰과 제리> 속의 깜찍한 생쥐 제리였다. 슬랩스틱 코미디에 다름 아닌 고양이 톰과 생쥐 제리의 한바탕 소동은 언제 어느 회를 보더라도 매일의 일상을 가볍게 치고 빠지는 상황극 내지는 일일시트콤을 보는 듯 친숙하게 다가왔다. 지극히 대중적인 쥐와의 동거가 시작됐다.

**의외로 영민한 친구**

생쥐 제리의 꼬리를 좀더 붙잡고 늘어지자면, 매회 이유 없이 제리를 붙잡으려 갖은 난리를 피우는, 아무리 봐도 악역이 분명한 고양이 톰에게 웬지 측은지심을 품게 되는 까닭은 실은 제리 때문이다. 표면적으로 약자로 분



**나를 '쥐'라고 불러줘**



류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이지만 간혹 이유 없이 알미워지는 데는 역시 이유가 있다. 한 줌도 안 될 범한 자그마한 생쥐에게, 알뜰도록 영특한 구석이 있는 까닭이다. 언뜻 보기에 세상만사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이 포커 페이스는 때로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톰에게 복수를 일삼는다.

그리고 보면 동양의 십이간지(十二干支)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吾未申酉戌亥)'의 시작, '자(子)'가 의미하는 동물인 쥐가 나머지 열한 마리의 동물들을 제치고 십이지의 첫 자리를 차지한 사연도 그 맥락이 다르지 않다. 이에 얽힌 여러 설화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국가문화유산종합정보서비스(www.heritage.go.kr)에 공식 기록된 이야기이다. 옛날, 하늘의 대왕이 동물들에게 지위를 주고자 했다. 그리고 선발 기준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정월 초하루에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달한 짐승에게 그 지위를 주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들은 각 짐승들은 기뻐하며 저마다 빨리 도착하기 위해 훈련을 했다. 그중에서도 소가 가장 열심히 수련을 했다. 정월 초하루날, 동물들이 앞다투어 달려가는 가운데 부지런한 소가 맨 먼저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한 바로 그 순간, 소에게 붙어 있던 쥐가 냉큼 뛰어내리면서 문을 통과했다.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吾未申酉戌亥)'. 지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잔꾀를 써 십이지의 첫 자리에 등극한 셈이다.

한편 1992년 만화 역사상 최초로 풀리처상을 수상했던 독일 작가 아트 슈피겔만의 그래픽 노블 <쥐(Maus)》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 블라텍이 아들인 작가 아트에게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이야기이다. 유대인을 쥐로, 게슈타포를 고양이로, 폴란드인을 돼지로 그려 인종 간의 역학관계를 상징화한 이 만화 속 주인공 블라텍은 치밀하다 못 해 간사할 정도로 머리를 굴린 끝에 살아

남는다. 아트 슈피겔만의 눈에 비친 쥐 역시 영민한 존재이되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던 터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여름, 드디어 반가운 나머지 앞발이라도 부어잡고 힘껏 악수를 나누고픈 똑똑한 쥐 한 마리가 애니메이션계에 나타났다. 오는 2008년 2월 8일 LA에서 열리는 제35회 애니상(Annie Awards)에서 쟁쟁한 경쟁자 <심슨 가족, 더 무비>와 <슈렉 3>를 제치고 25개 부문 가운데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이 애니메이션은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소박한 시골 스투에서 그 제목을 빌려왔다. <라따뚜이(Ratatouille)》. 주인공 레미는 절대 미각을 타고난 생쥐다. 그리고 이 건 정말이지 눈물 없이는 차마 받아들이기 어려운 슬픈 현실이다. 쥐에게 음식이란, 만드는 것이 아닌 훔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라따뚜이>에서라면 "누구나 요리할 수 있다(Anyone can cook!)" 우여곡절 끝에 과리의 별 다섯 개짜리 레스토랑 '구스토'에 입성한 레미는 주방 청소 담당 링귀니와 더불어 희대의 파트너십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주방 출입금지 목록을 만든다면 단연 1위에 오를 범한 쥐가 무려 메인 셰프의 모자를 쓴다는 녹록치 않은 설정인 것이다. 이 비호감 넘치는 내용을 맛깔스레 조리한 감독 브래드 버드는 드디어 쥐 레미에게 '진실 한 줌'이 담긴 요리를 만들 줄 아는 지혜를 선사했다. 비로소 삶의 지혜를 터득한 쥐 한 마리가 여기 있다.

**김뉴연**  
프리랜서. 지난 5년 동안 <마담 뫼리>와 <마리골레> 등 패션지에서 피쳐 에디터로 활동하다 영화주간지 <필름 2.0>에서 기자로 일했다.

# cultural space in Seoul



## 서울, 바람의 공간 남산, 전망대

글. 도호연



언제나 그랬다. 결국 서울에 관해 말하자면 시작도 절정도 결말도 남산이었다. 그리고 남산 꼭대기엔 하늘에 꼭짓점을 찍은 타워가 솟아 있으므로, 하늘에 올라 유일하게 구름 가까이 탈출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으므로, 서울에 관해서라면 언제나 남산을 떠올렸다.

남산으로 향하는 노란색 02번 버스에 올랐다. 의자도 노란색, 손잡이 기둥도 노란색인 버스는 한가한 오후만 큼이나 한산한 인원 몇 명만을 태우고 느리게 출발했다. 지난해엔 이렇게 가까운 남산도 한 번 오를 틈 없이 바빴다. 재작년 여름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을 때, 싱싱한 브로콜리 다발같이 보이던 나무들이, 오늘은 도시의 풍경을 채 가리지 못하고 바짝 옹크려 겨울날을 헤치고

있었다. 그러나 매서운 바람에 아랑곳없이 길게 늘어진 겨울 햇살의 색깔은 따뜻했고, 사람들의 옷차림마저 닳아가는 겨울나무의 색깔도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버스는 다행히도 아주 느긋하게 산굽이를 타고 오른다. 잠시 맛보는 일상에서의 탈출을 여유로운 여정으로 이끌면서 말이다. 짐차, 세상의 일들은 떨어지고 나는 잠시 접어두었던 씬표 혹은 느낌표 같은 것을 꺼내어 볼 생각을 한다. 산은 뜻하지 않아도 마음을 흔드는 감상이 튀어나오는 곳이다. 버스 덕분에 등반은 속성으로 끝날 것이다. 나는 도시 아래의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공간으로 차원 이동할 체비를 서둘렀다. 정상에 올라선 기분을 준비하면서 차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는다.



## 서울, 바람의 공간 남산, 전망대

꼭대기가 가까운 지점에서 버스기사는 기지개를 펴고 문을 열어젖혔다. 승객들은 남김없이 버스를 떠났고 정상을 향한 마지막 몇 걸음만이 남았다. 호흡이 절로 크게 들이켜진다. 삼삼오오 오르내리는 사람들 사이로 자전거 한 대가 바람을 가르다. 외국인 탑승 택시나 노란 버스가 아니고서는 이제 더 이상 차로 오를 수 없는 남산길이다. 자전거 생각을 왜 하지 못했을까. 부러운 시선을 눈치 챘는지 자전거는 더욱 매끄럽게 나무 그늘 아래로 미끄러지듯 사라진다. 오르고 내리는 방법에 따라 답아가는 풍경도 저마다 다르겠지. 간간히 일본어와 중국어가 들려온다. 드디어 서울 사람이거나 서울 사람이 아니거나 어찌 됐건 서울의 상징, 남산의 꼭대기에 올랐다.

전망대. 지평선이 희미해지는 곳까지 서울은 사방을 둘러 뻗어 있다. 저 아래에서 남산은 늘 손에 닿을 것 같지 않았는데, 꼭대기에 서니 다시 서울이 멀어진다. 달력은 항상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새것으로 교체된다. 서울의 한가운데에 선 나의 날들도 새롭게 바뀔 수 있을까. 눈을 가늘게 떠도 보일 듯 말 듯한 저 작은 창문들 속에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겠지. 동서로 방향을 틀어 보아도 서울이 가득하다. 500원 동전을 넣고 서울을 깊이 살펴본다. 수많은 집들과 차량 행렬이 보이고, 집 근처 연기를 뿜어 올리는 당인리 발전소도 렌즈 속으로 들어온다. 가늘게 빛나는 한강을 따라가 보고 강 건너 높이 자란 빌딩숲도 헤쳐 보다, 그만 눈앞이 캄캄해져 버렸다. 500원이 빌려준 천리안의 시간은 짧았다. 아무튼 세상은 그대로였고, 나의 날들은 구름이 흘러가듯 계속 흘러갈 것이다.

사실 남산 꼭대기에서는 전망대에 ‘있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저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기획안을 작성할 일도 없고 바빠 저녁 식사를 준비할 일도 없다. 단지 서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목적이요 할 일이다. 탁 트인 하늘 앞에 마주 선 순간, 저만치 떨어진 도시를 바라보면 자신을 묶고 있던 마음의 멍에도 떨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뿐이지만, 자신과 자신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엮을 수 있다.

전망대 펜스에 달려 있는 수많은 자물쇠들.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이 채워놓은 약속의 징표다. 연인들은 팔짱을 끼고 결코 풀이지 않음 자물쇠에다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 내일을 맹세한다.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는 허공 아래로 던져 버렸으리라. 맹세는 흩어질 수 없고 두 사람은 이제 떨어질 수 없다. 비와 바람이, 밤과 낮이, 달력의 마지막 장과 첫 장이 자리를 바꾸어도 풀리지 않을 결연한 약속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에서 한번쯤은 누구라도 꼭 해보았을 낭만의 정점이 거기에 있다. 남산 전망대에는 그때에 맺은 사랑의 맹세가 수없이 매달려 있다.

혼자인 나도 마음의 무엇인가를 다시 맺고 돌아서기는 마찬가지였다. 셀카를 찍거나 코끝을 하늘에 걸이겨 겨울의 순간을 기억 속으로 떼어낸다. 발아래에 자신의 삶터를 두고서 문학교과서 어디쯤에 나올 법한 그런 인생의 감정을 풀어보는 것이다. 전망대에선 여럿이 함께여도 그렇다. 서로서로를 번갈아가며 보고 뒤섞여 이야기들을 종알거리다가도, 전망대에 올라서면 사방을 둘러 눈이 넓어졌다가 마침내는 자신의 내면에게로

되돌아가 나만의 무엇인가를 품게 되는 것이다.

전망(前望)한다는 것은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는 것’이다. 남산 전망대에 선 사람들은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을 앞에만 걸고, 다시 내려가 만날 세상이 앞으로 새롭게 다가와주기를 기약한다. 그러므로 남산 전망대는 서울 사람들의 희망에 관한 공간이다. 밤이면 서울타워가 무지갯빛으로 그 소망들을 모아 하늘에 쏘아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남산은 서울의 내일에 관한 장소이고, 추억에 관한 장소가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망이 모여드는 꼭대기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천천히 늘리려 가슴을 폈다. 그리고 새해엔 숨 가쁜 삶 속에 묻히지 않고 작은 여유이지만 촉촉한, 이런 순간 여행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했다. 다시 저 먼 곳을 내다보자 내 소망이 바람을 타고 날아오른다. 난간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전망대에서의 도시는 그 어느 곳보다 공황했으므로…….

비록 사방 둘레 턱밑까지 차오른 서울 속에 갇혀 버린 산이지만 다른 모든 산들이 그러하듯이, 오르는 모든 이들에게 남산은 풍족하다. 어쩌면 도시 한가운데에서 가장 재빨리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기도 다른 산보다 더 목마름을 채워주는지 모른다. 남산이 없었더라면 서울의 빌딩숲은 더 깊은 그늘을 드리웠을 것이다. 한강물도 금빛으로 빛나는 자태를 보여줄 자리가 없어 서운했을 테고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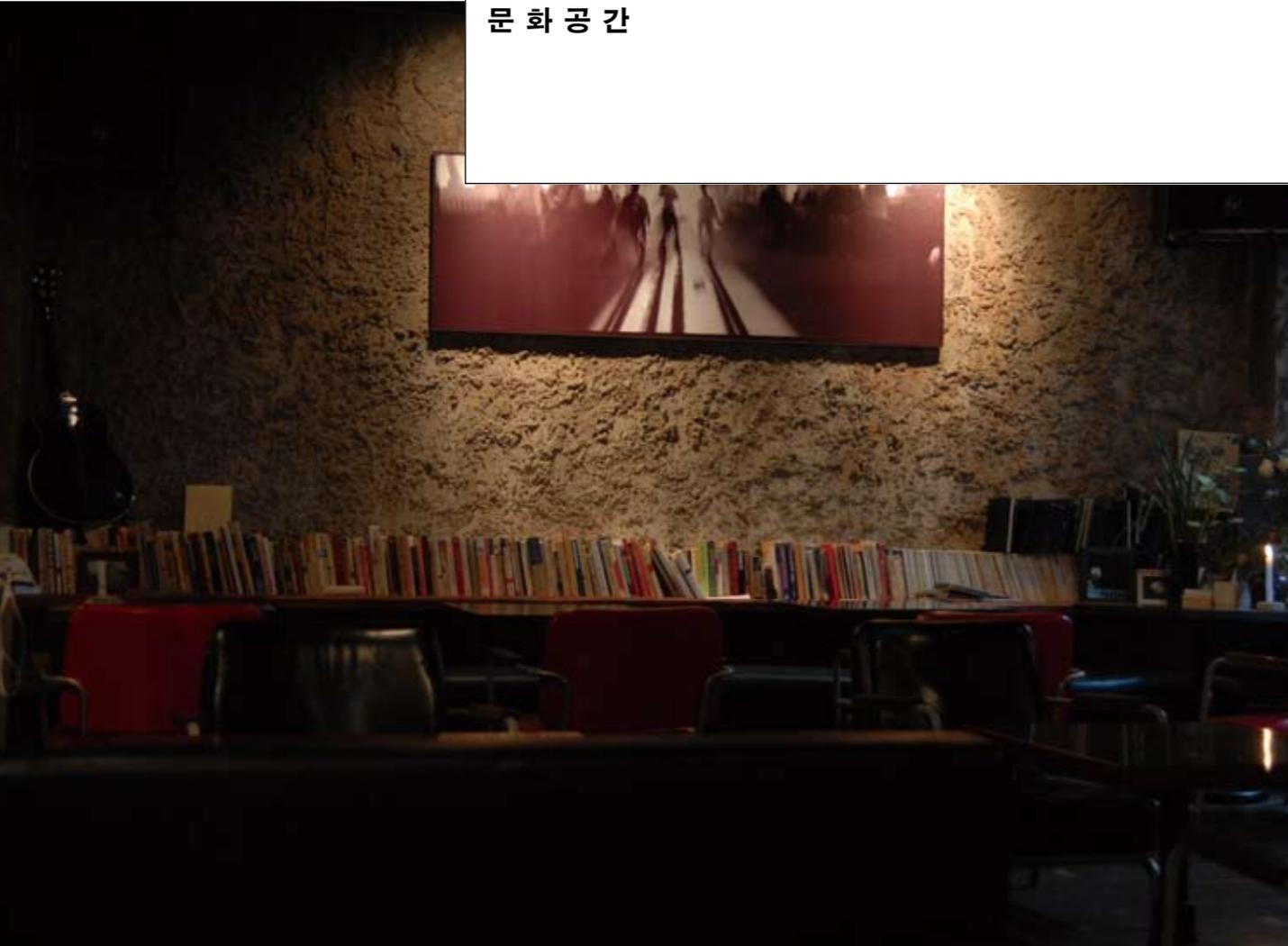
서울타워 꼭대기로 오르는 엘리베이터 티켓은 다음을 위해 남겨 두기로 한다. 오후 햇살 속에서 충분히 새해를 위한 전망을 누렸으니 그것으로 족했다. 연인들의 결연한 약속들을 보면서, 추억을 찰카이는 여행객들을 보면서 그들의 순간에 감염이 되었으니까, 흘러가는 구름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으로 다가가 주었으니까 말이다.

가슴 속주머니에 썬표와 느낌표 몇 개를 고이 접어 넣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03번 버스에 올랐다. 그러나 내리막길로 접어들자마자 도시의 중력이 빠르게 나를 잡아 떨어트린다. 저만치 아래였던 세상일이 다시 다가오는 것이다. 책상에 쌓아둔 서류 봉지, 내일 아침 잡아둔 스케줄이 재빨리 머리를 메워준다. 분명 올라올 때에는 버스정류장에서부터 남산에 대한 전망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었다. 그러나 돌아서니 산도 구름도 사라져 버린다. 여행은 끝났고, 썬표와 느낌표들은 한동안 주머니 속에서 나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터널로 통과해 버리거나 산허리로 돌아가는 곳, 늘 보이지만 쉽게 닿지 않는 곳, 추억에 새겨 두나 잊고 사는 곳, 남산은 또다시 한동안 잊혀질 터이다. 그러나 신촌 연대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혹은 차를 타고 잠실대교 위를 건너다가도 고개를 들면 마주치겠지. 서울의 중심점을 찌르고 있는 산, 라디오 전파로 서울의 하늘 위까지 천막을 두른 산. 그곳은 세상에 묻힌 나와 상관없이 언제나 하이라이트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언제라도 남산이 바라다 보이면 거기서 엮었던 소중한 것들이 생각날 것이다. 이견이 있다 해도 언제나 그렇듯이 그 자리에서 변하지 않을 약속이기에, 남산은 서울의 영원한 아이콘이다. 여행이 그리워 탈출이 황급히 필요할 날까지 혹은 하늘에 걸어 두고픈 약속이 또 하나 생길 날까지 남산 전망대여, 안녕. 연인들의 소중한 자물쇠를 꼭 채워 두고 있기를, 새날을 향해 걸어두었던 내 희망을 잊지 말아주기를……

### 도호연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경상도와 충청도를 두루 거쳐 서울 상경 12년차이다. 일찌감치 유랑하는 법을 연습하며 새로운 세계 만나기에 폭 빠져 있던 작가는 현재 즐겁게 대한민국으로 탈출하기를 시도 하고 있다. 2006년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서울골목 여행가이드》라는 유람기를 펴내기도 했다. 미술과 글을 통해 만드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작가이다.



‘홍대 앞’은 문화의 미궁이며,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놀이터다. 홍대라는 거대한 예술 공룡과 그 앞에 चु춤히 늘어선 학원들은 이곳의 밑바닥 지층이 미술인 세계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사회면을 들락거린 클럽들은 ‘홍대 앞’을 문제적 유흥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물밑 듯 들어오는 상가와 ‘견고 싶은 거리’라기 보다는 ‘먹고 싶은 거리’로 보이는 지도의 변화는 문화 보다는 상업이 더욱 왕성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럼에도 이 좁은 땅을 떠날 수 없는 문화인들은 지역 곳곳에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땀을 쏟고 있고, 가끔은 혁신적이다 싶은 정도의 공간들이 문화적 랜드마크로 등장하기도 한다. 낯이 복잡해지지만, 곳곳에

서 보석을 찾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전통적인 장르예술의 터전**

홍대 앞에는 전통적인 공연장과 갤러리도 상당수 자리하고 있다. 갤러리의 경우 인사동을 중심으로 포진한 갤러리와는 또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홍대 앞 갤러리들을 한 바퀴 돌면 젊고 상상력으로 가득 찬 작가들의 현재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대안공간 루프]는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일반 갤러리들과는 달리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전시를 하는 작가도, 관람자도 따로 돈을 지불

할 필요가 없다. 대안적 미술작품 전시에 집중하고 있지만, <EBS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전>이나 <일본 비디오 아트상영회> 등 다양한 문화 분야에도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12월에는 <대추리 현장예술 도큐먼트\_들 가운데서>전을 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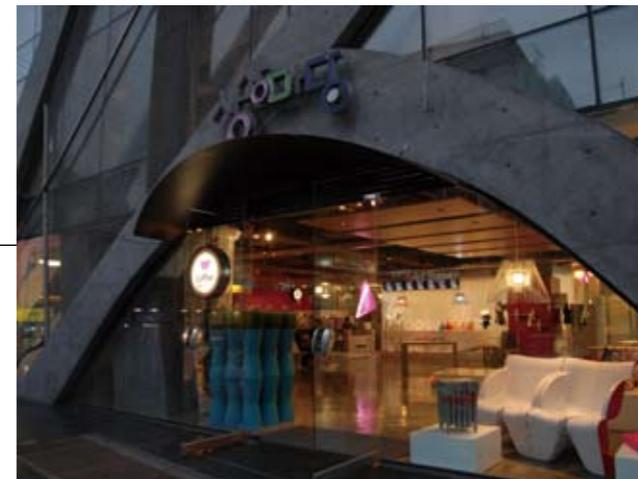
[짜집 스페이스]는 (주)짜집이 운영하는 비영리 문화대안공간이다. 다양한 형식의 기획전을 열어 젊은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것은 전시회 형식의 발표회인 <뽕화론 연구>.

[대안공간 미끌]은 미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를 포괄하는 창작 모임인 ‘마더링 선데이’가 운영

하는 비영리 갤러리다. 다양한 장르를 미끄러지듯 넘나드는 전시를 표방한다. 얼마 전 <투발루 인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라지는 것’을 들여다보는 전시를 열었다. 올여름 문을 연 [갤러리 아우재]에서는 현재 주목받는 일러스트레이터인 봄로야의 콘서트전을 열고 있다. 봄로야의 첫 번째 책 <선인장 크래커>의 출간 기념 전시다.

[산울림소극장]은 극단 산울림이 1985년에 문을 연 공연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홍대 앞에서 굳건히 자리를 잡고 꾸준히 연극을 올려왔다. 지난 12월 말까지 임영웅이 연출한 <바람의 욕망>을 공연했다. 2005년 문을 연 [비보이 전용극장]도 비보이의 인기와 더불어

살아 움직이는 미궁,  
홍대 앞의 문화공간들



어 자리를 굳히고 있는 중이다. 이 외에도 작은 소극장들이 자리 잡고 있으나, 갤러리에 비하면 빛을 보지 못하는 편이다.

새로운 복합 문화의 거점들

홍대 앞을 ‘찾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포인트는 대부분 ‘지하철 몇 번 출구’일 것이다. 하지만 홍대 앞에 ‘사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주차장 골목의 작지만 강렬한 사거리다. 이곳은 지난 10년간 홍대를 들쭉거리게 한 요충적인 부동산의 입지이기도 하다. [씨어터 제로]가 [산울림 소극장]의 대청점에 서서 연극과 공연 문화의 기둥을 세우려던 이 자리에 최근 [상상마당]이라는 건물이 들어섰다.

[상상마당]은 여러모로 ‘씨어터 제로-산울림 소극장’의 지리적 대청선을 따라가면 나오는 ‘째지 스페이스’를 떠올리게 한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인의 세계, 특히 ‘홍대 앞’을 파고드는 일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어떤 단체나 정부도 하지 못하는 과감한 투자 속에서 문화적 활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이다.

[째지 스페이스]가 지리적으로는 외곽에 포진하면서 개성이 강한 갤러리/스튜디오/리사이클 예술 마켓을 세웠다면, KT&G의 [상상마당]은 중앙에 어울리는 비교적 담대한 모습으로 극장/갤러리/예술 마켓의 복합 문화공간을 구성한다. 서울 곳곳에 대기업 후원의 대형 문화센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홍대 앞이라는 입지 속에서 비교적 인디문화에 많은 영역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 특히 홍대 앞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립영화 공간이 생겨났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직접 제작한 독립영화 <은하 해방 전선>의 상영

이나 <디자이너스 파티> 등의 기획전 등이 홍대 앞의 새로운 문화적 풍경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해 본다.

홍대 앞의 문화적 팽창, 혹은 높은 임대료부터의 탈출하려는 움직임은 서교 사거리 건너편의 지형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만든 [다원 예술매개공간]은 최근 홍대 앞 문화인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는 곳 중의 하나다. 복합장르, 실험예술, 대안 예술, 독립예술을 아우른다는 [다원예술]은 전시, 공연, 공부의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데, ‘예술 관계자’만이 아니라 폭넓은 문화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들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좀더 외곽으로 빠지면 만나게 되는 [다중 지성의 정원]은 대학 바깥으로 뿔쳐나온 인문문화의 공간이다.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에피쿠로스의 정원에서 ‘지식인 뿐만 아니라 노예, 매춘부, 아이들, 걸인들이 함께 대화하며 공통의 의미를 생산했듯이’ 학생, 교수, 모든 형태의 노동자, 주민들과 아이들이 문화적 대화를 나누고 공부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그동안의 홍대 앞이 ‘노는 문화’에 많은 무게를 실어온 게 사실인데, ‘공부하고 생산하는 문화’의 축을 힘껏 늘려주는 공간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상업 공간의 문화적 이벤트와 커뮤니티

홍대 앞의 카페와 비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을 넘어 문화를 담는 그릇이고자 하는 곳이 많다. 전시나 공연은 이들의 대표적인 활동 목록이다. 그러한 문화행사를 수시로 열지는 않는다 해도, 적어도 책을 비치해 ‘북카페’ 정도의 문화적 아우라라도 가지려는 것이 홍대 앞 카페들의 특징이다. 홍대 앞의 카페들은 다른 지역의 카페와는 다른 방식으로 향유되고 있다. 그것은 각 카

페들의 활동 상황만 봐도 분명하다.

대표적인 문화아지트로 [이리카페]를 들 수 있다. 소설가들의 작품 낭독회나 소규모 연극, 전시들이 자주 열리는 이곳은 얼마 전에도 소설가 김영하, 조경란의 신작작품 낭송회로 눈길을 끌었다. 행사가 없는 평상시에도 젊은 예술가들을 종종 볼 수 있는 것이 이곳의 특징이다. 예술잡지, 문화서적을 갖추어 놓아 전시가 열리지 않는 날도 눈이 심심할 일은 없다.

[카페 팩토리]에서도 수시로 전시가 열린다. 지난 10월에는 설치미술, 금속공예, 주얼리, 수제인형 등 소소하지만 구경할 맛이 나는 작품들을 모은 그룹전시 <POCKET>을 열었다. 날짜를 잘 맞추면 연극과 공연도 볼 수 있다. [무대륙]은 재활용 인테리어로 눈길을 모은 카페로, 버룩시장이나 공연, 전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단골들이 모여 다양한 세미나를 여는 명실상부한 문화의 공간이 되고 있다.

[카페 샴]은 이름 자체가 ‘문화와 삶이 샴쌍둥이처럼 얽혀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젊은 작가들의 작품전을 적극적으로 연다. 조각을 전시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한 것이 이색적이다. [카페 Aa]가 유명한 것은 공연과 전시 때문이 아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전시물이다. 사람들은 전시물에 앉아 전시물을 구경하며 차를 즐긴다. 문화의 다양함은 이곳을 통해 보장된다. 홍대 앞이 단순히 젊고 치기 어린 예술가들에게만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클럽 로보]도 재미있는 행사가 자주 열리는 클럽이

다. 창조적인 직업을 갖는 사람들이 모이는 포럼인 <페차쿠차 나이트>를 열기도 하고, 종종 언더가수의 공연이 열리기도 하고, 영화상영회를 갖기도 한다. 문화예술인들이 주축이 되는 연말의 버룩시장도 기대가 되는 행사 중의 하나이다. [로베르네 집]은 아주 작은 규모이지만, 알찬 전시가 자주 열리는 바다. 전시가 없더라도 미술가인 주인들이 직접 꾸민 인테리어도 볼 만하다. [공중캠프]는 자칭 “음악, 술, 춤, 영화, 전시, 대관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곳으로, 직접 <캠프데이>를 주최한다. 지난 7월에 아홉 번째 캠프데이를 열었다.

세계에서 서울처럼 격동적으로 지도가 바뀌는 도시가 있을까? 특히나 홍대 앞은 ‘문화 네비게이션’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정신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문화의 미궁이다. 그리하여 홍대 앞의 탐색은 무질서하게 팽창하는 상업공간 속에서 새로운 문화의 조각들을 찾아가는 험난한 모험찾기다. 점점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임이지만, 적으로만 보였던 ‘가게’들이 상큼한 개성과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친구로 변신하기도 한다. 굵직굵직하게 세워진 새로운 건물들도 새로운 프로젝트로 우리들을 유혹한다. 이래저래 항상 찾아가 보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동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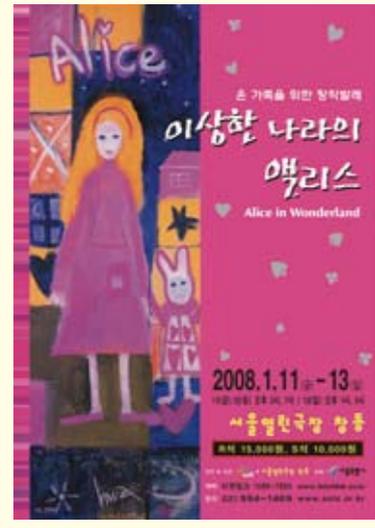
사탕발림(박사와 이명석)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장르와 장르사이를 넘나들며, 글과 이미지를 뒤섞는 복합 문화 프로젝트팀. 웹사이트 [sugarspray.com](http://sugarspray.com)을 함께 운영하며 <고양이에서 다행이야>, <여행자의 로망백서>, <나의 빈칸책> 등의 책을 함께 만들었다. 현재 ‘성북동 사용설명서’, ‘지구보다 큰 지구’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 서울문화재단 문화정보

## 문화정보

### 서울연극장 창동 1월 공연 안내 가족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2000년, 2001년, 2005년 문예회관, 예술의전당에서 공연 당시 관객들의 큰 호응 속에 막을 내렸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21세기적 모험을 통한 기발한 상상력과 순수한 동심을 되찾아보는 발레 작품이다. 다양한 동물 캐릭터 인형과 화려한 무대로 한국의 대표적 안무가 제임스 전의 참신하고 기발한 해석으로 호평을 받았다.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동심을 회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온 가족을 위한 발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명작을 새로운 모습으로 만나는 좋은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 기간: 2008. 1. 11(금)~1. 12(토) 3시, 7시 / 2008. 1. 13(일) 1시, 5시
- 장소: 서울연극장 창동(지하철 1·4호선 창동역 1번 출구 5분 거리)
- 관람료: R석-15,000원 / S석-10,000원
- 대상: 만 36개월 이상
- 주최: 서울문화재단 서울연극장 창동
- 문의: 02-994-1465(www.sotc.or.kr)

**청계창작스튜디오 전시 안내**  
(청계천의 꿈 - 철기시대는 進化中)  
오는 1월 15일까지 단조로운 수 있는 청계천변 상

가와 공방을 오감만족의 문화명소로 알리기 위해 조성한 '청계창작스튜디오'의 개관 기념 기획전시를 개최한다. 갤러리에 예술가와 상인 그리고 관람객의 공존을 이끌며, 재미적 요소와 예술적 요소를 함께 갖춘 문화마당을 조성하여 청계천의 감성심을 자극하고자 기획되었다. 철을 소재로 한 <청계천의 꿈 -철기시대는 진화중> 전시는 김래환 외 총12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청계천 일대와 문화공간의 유기적



연결을 시도하였다. 직장인도 퇴근 후 관람할 수 있도록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관람료는 무료이다.

- 기간: 2007. 12. 27(화)~2008. 1. 15(화), 10:00~22:00
- 장소: 청계창작스튜디오(청계3가 137번지 센쉴관광호텔 1층)
- 관람료: 무료
- 주최: 김래환 작가 외 12인
-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 문의: 02-3290-7145

**서울문화재단 지원금 안내**  
'2008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개시  
1월 1일을 시작으로 2008년도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시민문화예술 지원사업은 서울에서 문화활동을 추진하는 예술 단체 및 마추어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8개 분

야(무용, 연극, 음악, 문학, 전통, 시각, 문화 일반, 축제)로 나누어 지급한다. 2008년에는 총242개 단체가 평균 650만 원 규모로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나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문의: 서울문화재단 문예지원팀 02-3290-7110(www.sfac.or.kr)

**자선기부 빛의 축제**  
'2007 하이서울 루체비스타'  
루체비스타(lucevista)는 빛을 뜻하는 이탈리아어 루체(luce)와 풍경·전망을 뜻하는 비스타(vista)가 합쳐진 단어로, 2004년에 시작되어 네 번째 개최되는 서울시 일대의 빛의 축제이다. 오는 1월 6일까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점등되는 본 행사는 서울광장, 청계광장~모전교~광통교~광교 구간에서 진행된다. 특히 서울광장에서는 원형으로 이룬 루체비스타 속에서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도록 스케이트장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오색으로 빛나는 겨울 체험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추운 겨울, 연인과 가족과 함께 서울광장으로 나선다면 도심 속 문화가 만드는 진기한 광경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서울문화재단 'C-9 생생 공공미술프로젝트' <온고지신-낫춤> 전시**  
서울문화재단은 'C-9 생생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강용면 작가의 <온고지신(溫故知新)-낫춤> 전시를 오는 1월 7일까지 청계천 9가에 위치한 재단 청사에서 개최한다. 한민족 고유의 토착적인 상징체계를 모티브로 전통과 현대의 미감을 아우르는 작업을 추구해온 강용면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3~5미터 규모의 대형 설치작품 7점을 선보인다. <온고지신-낫춤> 전시는 푸른색 PC(폴리카보네이트)판과 LED조명 램프로 만들어져 마치 질푸른 청계천의 맑은 물이 유입된 듯 신비로운 조각의 모습을 띠고 있다. 특히, 신년을 맞아 전시 작품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포토존'으로 제공할 예정이어서 환상적인 작품세계를 만나는 색다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간: 2007. 12. 3(월)~2008. 1. 7(월)
- 장소: 서울문화재단 청사(청계3가)
- 전시작가: 강용면(입체예술가)
- 관람료: 무료
- 주최: 서울문화재단
- 문의: 02-3290-7045

**남산창작센터 2008년도 1/4분기 수시 대관 안내**  
규모가 있는 창작공간을 마련하여 대규모 무대공연 예술의 제작 여건을 활성화하고,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창작 의욕을 진작하기 위한 남산창작센터에서

2008년도 1분기 대관을 접수받고 있다. 남산창작센터는 제1연습실(315m²)과 제2연습실(165m²)이 마련되어 있으며, 전일(09:30~22:30) 대관시 제1연습실은 16만 원, 제2연습실은 8만 원에 대관하고 있다. 도심 속에 위치하여 접근이 쉽고, 저렴한 가격으로 대형 공연을 연습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사무실로 문의하면 된다.

- 시설위치: 서울 중구 예장동 산 5-84
- 시설면적: 총 1,686.2m²
- 시설현황: 연습실 2개소(315m², 165m²), 사무실, 화장실/샤워실, 리딩룸/탈의실 등
- 문의: 02-318-1741(www.sfac.or.kr)

**청계창작스튜디오 갤러리 2008년도 1/4분기 수시 대관 안내**  
시각예술 분야의 창작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서울의 명소인 청계천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계창작스튜디오 갤러리'에서 2008년도 1/4분기 수시 대관을 하고 있다. 청계3가에 위치하고 있어 관람객들의 접근이 편리하며,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공익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할 수 있는 삼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다. 227m² 규모인 갤러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되며, 대관료는 77,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여타의 미술관보다 저렴한 편이다. 좀더 많은 시각예술단체들에게 우수한 작품발표 기회를 제공하는 청계창작스튜디오에 관심 있는 작가라면 서울 관광의 중심지인 '청계창작스튜디오'에서 작품을 기획하는 것은 어떨까?

- 시설위치: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37번지 센쉴관광호텔 1층
- 시설면적: 총 227m²
- 문의: 02-3290-7143(www.sfac.or.kr)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창립총회 개최**  
자치구 지역문화활동의 거점인 문화예술회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 창립총회가 지난 12월 12일 서울문화재단 지하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서울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2008년 문화시정 원년을 맞아 자치구 간의 문화예술활동 편차를 극복하고 문화적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서울시 문화정책 구현의 전문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연합회를 운영할 임원단과 사업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회장으로는 노원문화예술회관의 최진용 관장이 투표를 통하여 추대되었으며, 부회장으로는 서대문문화예술회관 김영욱 관장과 은평문화예술회관의 이영일 관장이, 감사로는 구로아트밸리예술극장의 김홍수 관장이 선임되었다. 회장단은 곧 10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기획을 진행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간의 2008년 공연사업을 공유하고, 공동기획을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알찬 문화 제공으로 시민의 문화향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눔과 소통을 전하는  
'움직이는 서가'



“사람을 향합니다”

지금도 방영되고 있는 모 기업의 이미지 광고 문구이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할머니에 대한 어린 손자의 마음을 담은 ‘할머니와 목련’편이다. 어린 손자가 탐스럽게 핀 목련꽃을 따서 상자에 고이 담아 할머니께 가져갔지만 그새 시들어 버린 목련 꽃잎을 보고는 너무도 서럽게 우는 어린 손자와 그 손자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던 할머니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15초의 짧은 시간에 긴 여운과 마음에 동요를 줄 만큼 내게는 큰 인상을 남겨준 광고였다.

요즘 필자는 시작한 비록 작은 시도에서 출발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잃어버렸을지 모르는 따뜻한 마음을 다시 찾아가고 있다. ‘책을 많이 읽고 그 생각을 함께 나눠 보자’라는 의도로 진행되는 독서캠페인 <책 읽

는 서울>을 2년째 담당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지향하며 올해로 4년째 자리매김한 <책 읽는 서울>은 지역 도서관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며 진행한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2미터가 넘는 크기의 동화책을 공원이나 광장에 선보이며 즐거운 책 읽기를 제안하는 ‘빅북-걸리버의 그림 동화책’, 책 읽기와 콘서트를 연계한 ‘동화 읽어주는 낭독 음악회’, ‘라이브 북콘서트’, 소외된 아이들을 찾아가 책을 읽어 주는 ‘찾아가는 낭독회’ 등이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그중 올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움직이는 서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 ‘움직이는 서가’는 가장 작은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교실, 나아가 책을 펼치고 함께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학습문고 지원사업이다. 서가에 바퀴를 달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책 모양의 서가를 펼치면 그 안에는 실제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 100권과 함께 선사할 독서수첩 100권이 있다. 더불어 단순히 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 책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한다. 즉 저자와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저자와 함께 학교에 가다’, 책에서 이끌어낸 주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열린 독서토론’ 그리고 책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바로 그것이다.

앞서 소개한 세 가지 프로그램은 모두 각각의 특징을 갖는데 특히, 책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독후활동으로 글쓰기의 방법만이 아닌 아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경험하고 소통하면서 그느

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운영된다.

얼마 전 ‘움직이는 서가’ 지원학교인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독후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될 만큼의 감동으로, 순간 모든 걸 멈추고 멈춰야 하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전래동화 《해님달님》을 읽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함께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학년이 어려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선생님에게 집중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걸렸다. 곧 아이들을 능숙, 능란하게 다루었던 담임 선생님의 도움으로 평정을 찾고 프로그램은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다.

동물을 표현하는 아이들만의 방법을 이끌어내 호랑이를 학습한 후, 어린 남매를 위해 떡 장사를 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어머니의 따뜻함과 밤늦은 시간

나눔과 소통을 전하는  
'움직이는 서가'



까지 서로 의지한 채 어머니를 기다리며 무서움을 쫓는 오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이었다.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몰입하고 역할극을 통해 책을 읽었을 때의 느낌을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을 무렵, 담임선생님이 조용히 곁에 오시더니 살짝 귓속말을 하셨다.

“선생님. 저기 저 아이 좀 보세요.”

“네……저 남자 아이요?”

그 아이는 여느 다른 아이와 다를 바 없이 재미나게 수업을 받고 있었다.

“저 아이 ○○이네요, ADHD 장애가 있어요. ADHD 장애 아시죠? 주의력 결핍에 충동적 과잉행동으로 학습과정에 문제가 있는……. 그런데 ○○는 자폐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요, 수업을 같이하기엔 참 많이 힘든 아이거든요. ○○ 부모님이 병원에서 학습치료도 병행하

고 있지만 특수학교까지는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서, 힘들긴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 함께 똑같이 수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 아이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하고 있네요. 너무너무 놀랍고 의외예요. 어머니가 보시면 너무 좋아할 거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촬영을 하던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책 속에 흠뻑 빠져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하는 모습에, 그야말로 눈물이 핑 돌고 마음 한가운데가 빠근하게 저러오기까지 했다.

너무도 작은 시도였다. 하지만 이렇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다. 책이라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한 아이의 마음을 어딘가에 몰입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아이에게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에 대한 따뜻함과 행복감을 알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사실, 그 순간 변하고 있었던 건 나 자신이었다. 물론 일상 속에서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스쳐 지나칠 수 있는 것에서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를 찾고, 책에서 가치 있는 의미를 찾아 소통하자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는 있었다. 하지만 어쩌면 성과 내기에만 급급했는지도 모른다. 그 과정 안에서 정작 눈에는 보이지 않게, 때로는 너무도 느리게 나타나서 그것이 가지는 힘이 얼마나 커다란 것인지를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다양한 정보와 얽은 지식에서부터 심지어는 삶의 가치 변화를 찾는 방법으로 디지털 문화와 스피드 문화에만 빠져 있다 보니, ‘책’이라는, 다소 투박하게 느껴지지만 낱장의 종이와 글자들이 모여 내뿜는 커다란 가치를 우리는 잊고 있었던 것이다.

책은 느낌과 기다림 그리고 되새김의 미학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잔잔하지만 깊고도 넓은 나눔과 소통의

미학이 있다. 난 오늘도 책과 함께하는 ‘움직이는 서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어떠한 모습으로 내 잃어버린 마음을 또 되찾을까 하는 부푼 기대감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간다. 할머니에게 선물하려고 곱게 담았던 하얀 목련이 시들어버려 눈물을 펄펄 쏟던 아이. 그리고 해님 달님의 떡 장사 어머니 역할을 하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야기하던 그 아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 듯하다. “선생님! 제 광주리에는요, 지금 떡이 세 개 남아 있어요. 우리 애기들 줄 건데 호랑이한테 다 뺏기면 어떡해요? 꼭꼭 숨길래요” 하며 해맑게 웃던 그 아이의 웃음이. 책, 그 무한한 감동 “사람을 향합니다.” 그리고 “소통합니다.”

글. 한지연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팀



서울문화재단 '문화는 내 친구' 회원 500분을 특별히 모십니다.

● 유효 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 ● 회원 가입비: 1만원(입금 후 namoo3@sfac.or.kr 로 확인 메일(이름, 연락처)을 보내셔야만 유료 회원 가입이 승인됩니다.) ● 입금 계좌: 1005-701-173812(우리은행) ● 회원 혜택: 가. 서울문화재단 e-mail 뉴스레터 제공 나. 서울연극장 창동 관람료 할인 (기본 10%, 경우에 따라 최고 30%, 대관공연 제외) 다. '문화는 내 친구' 프로그램 참여 시 우선 혜택 라. 서울문화재단 발간 《문화+서울》 월간지 우송 (회원 가입 기간) 마. 기타 마중물 회원을 위한 서울문화재단 주최 특별행사 초대

● 본 혜택은 '문화는 내 친구' 마중물 회원으로 참여해주신 500분에 한하며, 향후 회원 혜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문화는 내 친구' 마중물 회원 가입자 30분을 추첨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선정 2007 우수 문학도서와 서울문화재단 수첩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 02-3290-7044

###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남·여) 생년월일

전화

이메일

주소



□ □ □ - □ □ □

받는 사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 문화+서울

1 3 0 - 8 2 3



#### 독자의견란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책 (〈예술현장매뉴얼〉시리즈, 〈예술총서〉등) 1권을 보내드립니다.